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 명 사 상 만 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81호 【루계 제25690호】 주체106(2017)년 6월 30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전형단위들의 모범을 따라 만리마시대를 비약과 위훈으로 빛내여나가자

최근 우리 당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시대적모범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여러 단위들에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어린 축하문을 보내였다. 여기에는 이 단위들이 총진군대오의 전렬에서 계속 힘차게 내달리게 하고 그를 본보기로 하여 온 나라에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의 된바람이 더 세차게 나래치게 하려는 숭고한 의도가 깃들어있다.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전형단위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은 지금 하늘을 찌를듯 높으며 이 소식에 접한 전국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의 경쟁열의도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지금 군대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불씨로 하여 련대적혁신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전형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전형단위들에는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이 구현되여있으며 만리마시대의 지향과 특징, 우리 인민의 높은 리상과 영웅적투쟁정신이 체현되여있다. 시대의 전형들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우리 조국의 힘은 백배해지고 혁명의 전진속도가 빨라지게 되며 우리의 사상과 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가 앞당겨지게 된다. 모두다 전형단위들처럼 투쟁하며 더 높이 비약하자, 이것이 오늘 당과 혁명의 요구이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력사적진군이 개시된 때로부터 여러달이 지나갔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국방과 과학, 경제부문에서 신화적인 기적들이 련발적으로, 다발적으로 이룩되여온 이 나날 온 집단이 결사전, 백열전을 벌려 전례없는 혁신적앙양을 일으킨 만리마대진군의 기수가 바로 이번에 배출된 전형단위들이다. 당의 사상과 령도를 최고의 분발, 최대의 실적으로 충직하게 받들고 달성한 성과에 조금도 자만함이 없이 련속공격전을 들이대여 증산투쟁, 창조투쟁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운 여기에 전형단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정력적인 령도로 국방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치시며 애국애민의 헌신의 자욱을 쉬임없이 새겨가고계신다. 우리 조국을 강위력한 핵보검을 틀어쥐고 자력자강으로 흥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이며 우리 인민들에게 가까운 몇해안에 가장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헌신의 세계를 펼쳐가시는분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구상과 결심의 제일옹호자, 제일관철자가 되여 자기 부문, 자기 분야에서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새 기적, 새 기록을 창조해온것은 전형단위들의 특질이고 투쟁본때이다.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체 인민이 총돌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지금까지 거둔 성과는 참으로 대단하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거나 랑개를 늦추지 말고 전형단위들처럼 더 높은 목표를 끊임없이 돌파해나가야 한다. 전형단위들의 투쟁경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시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그이의 힘찬 발걸음에 전진의 보폭을 따라세우며 보다 큰 승리와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나가는 집단만이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떨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분수령으로 될 영광의 대회,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우리의 전진도상에는 의연히 커다란 애로와 난관이 겹쌓여있으며 투쟁과업 또한 방대하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우리가 당의 의지와 결심대로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돌파하며 자력자강의 위대한 창조물, 애국충정의 자랑찬 로력적선물들을 마련하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앞으로의 투쟁에 달려있다. 전형단위들의 투쟁기풍, 창조본때, 일본새를 적극 구현해나갈때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은 천지를 진감시키는 승전포성으로 끝없이 이어질것이며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는 만리마에 박차를 가한 기세로 더욱 빨라지게 될것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당에서 높이 평가하고 내세워준 전형단위들에서 터오른 기적과 혁신의 봉화가 온 나라에 대비약, 대혁신의 거세찬 불길로 나래치도록 하기 위하여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당의 사상관철, 당정책옹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모든것을 지향시키는것은 전형단위들에게서 본받아야 할 근본자세이다.

전형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하루하루를 당중앙결사옹위의 순간순간으로 이어가고있다. 당의 사상과 로선, 정책을 명줄로 간직하고 당의 부름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여 세멘트와 석탄, 구두, 수지제품생산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더 높은 실적을 거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와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원산구두공장,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로동계급의 로력적위훈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오늘의 총돌격전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전형단위들처럼 당의 사상관철, 당정책옹위를 위한 결사전을 맹렬히 벌려나가야 한다.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투쟁과업,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하는데 총돌격전의 화력을 집중하여 당중앙의 권위를 결사보위해나가야 한다. 내 나라, 내 조국을 하루빨리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워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과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만로고를 생각하며 한치지의 천이라도 더 짜고 한삽의 석탄이라도 더 캐며 한m의 천이라도 더 생산하여야 한다. 첨단과학기술성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나가는것이 총진군대오의 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공장과 일터마다에서 증산과 혁신의 동음이 나래치게 하는것은 전형단위들에게서 본받아야 할 투쟁방식이다.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은 곧 집단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이다.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와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를 비롯한 전형단위들에서는 자기 부문, 자기 분야에서 패권을 쥐고 세계를 압도할 하나의 목표와 지향밑에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종전에 비할바없는 첨단과학기술성과와 높은 창작성과, 실천적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앞선 직장이 뒤떨어진 직장을 적극 이끌어주고 동지들과 집단을 위하여, 다음교대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전형단위들의 집단주의적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쳐야 한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구호를 투쟁과 전진의 구호, 실천과 행동의 구호로 높이 들고 서로서로 뜻과 정, 마음과 지혜를 합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대중적영웅주의로 과감히 뚫고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형단위를 따라배우고 따라앞서기 위한 운동과 좋은 경험들을 교환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자강을 기적창조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전형단위들에게서 적극 따라배워야 할 투쟁기풍이다.

전형단위들에서 놀라운 혁신적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은 중요한 비결은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한데 있다. 당의 자강력제일주의와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간직하고 자체의 힘,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에 튼튼히 의거하여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였기에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매일 생산실적을 3배이상으로 끌어올려 년간 다시마생산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학기술선행, 과학기술중시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자기 힘과 지혜, 자기 기술을 굳게 믿고 자체의 력량과 내부원천, 잠재력을 남김없이 총동원함으로써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부족한것이 많고 조건이 불리할수록 자기 땅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면서 인민대중의 불굴의 정신력, 과학기술력을 정수로 하는 자강력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 경공업공장들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과 건설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며 우리 식의 국산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광범하게 활발히 벌려 오늘의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과학기술적으로 힘있게 추동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책임성과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전형단위들이라고 남들보다 조건이 더 좋거나 무엇이 많아서 눈부신 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결코 아니다. 121호림업련합기업소, 오서산화강석광산과 같이 일군들은 유능한 지휘성원,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 전투조직과 지휘를 면밀하게 짜고들고 생산자대중은 맡은 초소에서 최대의 실적을 내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한 결과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를수 있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전형단위들에서처럼 자기 단위, 자기 초소는 당앞에 전적으로 자신들이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당앞에 결의다진 투쟁목표를 어떻게 하면 훌륭히 수행하겠는가 늘 머리를 쓰며 들끓는 현장에서 화선식으로 전투를 능숙하게 조직지휘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은 탄전의 주인, 포전의 주인, 생산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맡은 초소와 일터에서 두몫, 세몫씩 일하며 최대의 마력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강력한 정치사상공세는 전투목표를 최단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점령해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전형단위의 당조직, 근로단체조직들처럼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전투목표를 수행하는데서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거기에 모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집중하여 공세적으로, 련속적으로 사상전, 선전선동전을 들이대야 한다. 료양과 강연, 선동을 해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이 우리 당의 사상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게 하며 막장과 포전, 포구, 건설장, 과학연구기지들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부터 열고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신정치사업을 박력있고 실효성있게 벌려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전형단위들의 뒤를 따라 더 큰 승리와 비약을 이룩하며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여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려명거리건설을 통하여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철도성청년돌격대 부려단장 한영수는 착공의 첫날부터 들끓는 건설장에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화선식으로 패기있게 하면서 통이 큰 후방사업으로 청년돌격대원들을 적극 고무하였다.

평양시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 인민보안원 최영란은 야간지원청년돌격대활동을 벌리면서 70층초고층살림집건설에서 혁명군대의 위력을 떨쳐가는 군인건설자들을 여러차례 원호함으로써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지난 기간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야간지원돌격대활동에 참가하여온 문화성 로동자 전미향, 국가품질감독위원회 국가규격제정연구소 연구원 박은옥은 려명거리건설장에도 달려나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기공구, 후방물자들을 지원하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안고 수십년간 수천척지하막장을 지켜온 선군시대공로자인 남양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 대장 김철수는 사회주의선경거리를 건설자들과 함께 일떠세우는 심정으로 지원사업에도 앞장섰다.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갈 한마음으로 평안남도련거리려객자동차사업소 로동자 문창건, 평성시원림사업소 로동자 최은학은 불철주야의 총돌격전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에게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지원하였다.

안주철도화학공장 지배인 박룡범, 회창군경로동직장관리위원회 로동자 전영환, 회창군기초식품공장 로동자 김경림, 성천군 성천읍 169인민반 리혜숙도 많은 후방물자와 자금을 마련하여 보내줌으로써 전투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당의 뜻을 꽃피우는 길에서 생의 보람을 찾으며 함흥시 성천강구역인민위원회 부원 리성혁, 사포구역인민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조광철, 흥덕구역도시건설대 로동자 한성옥은 많은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여러차례 려명거리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성의있게 하여 집단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함주군 함주읍 230인민반 김영순은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위훈을 떨친 아들의 몫까지 합쳐 많은 후방물자를 가지고 전투현장을 찾아가 일도 함께 하고 화선선동도 진행하였으며 단천지구광업총국 룡천광산 로동자 윤호영은 건설을 돕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태양의 성지지구를 인민의 제일락원으로 천지개벽시키는 숭고한 사업에 기여할 열의밑에 태천군인민위원회 산하단위 소장 김춘화, 김천군명칭 음악종합대학 부원 조금희, 신의주은하피복공장 로동자 김철남은 많은 건설자재들과 물자들을 건설장에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더욱 헌신해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네팔에서 상장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네팔기자협회에서 상장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상장을 전달하는 행사가 26일에 진행되였다.

행사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네팔기자협회, 네팔선군정치지지협회 인사들과 성원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등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상장을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이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위원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무궁번영할 강성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상장에는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 세계평화수호를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세기의 위대한 영웅으로 높이 칭송한다고 하면서 그이를 모시였기에 오늘 조선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핵강국, 로케트강국으로 더더욱 위용떨치고있다고 씌여져있다. 상장에는 세계의 정의와 진보,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을 축원한다고 밝혀져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회고위원회가 15일 전로씨야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비서 뽀드조로브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7월 9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회고위원회가 18일 도이췰란드반제연단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반제연단위원장 미하엘 코트와 부위원장 아르놀드 쾨온헤크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며 인터네트를 통한 소개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리기로 하였다.

* *

위대한 김일성주석회고위원회가 18일 수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총비서 아드난 이스마일이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혁명적당군의 본때와 기질을 남김없이 발휘

평안남도가물피해막이전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군인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언제나 우리 혁명의 제일선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단숨에의 투쟁기풍과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피끓는 가슴마다에 새기고 평안남도가물피해막이전투장으로 달려온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백두산혁명강군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며 가물피해막이를 위한 총공격전에 일제히 진입하였다.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고 유압식굴착기, 대형삽차 등 륜전기재들의 동음높은 전투장마다에서는 련일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영용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현지에 도착한 때로부터 불과 이틀동안에 500여개의 굴포와 1 400여개의 우물을 파고 수백정보의 논에 물을 대였다.

또한 수십리 물길건설과 수백리 물길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급파된 백수십대의 물차들과 많은 유압식굴착기, 대형삽차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전투성과를 더욱 확대해가고있다.

가물피해막이전투장에서 이룩되고있는 이 성과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결사관철하고야마는 혁명적당군의 본때와 기질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가물피해막이전투에 참가한 각 부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기적적승리를 이룩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 공격속도를 부단히 높이고있다.

평원군양수장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번영복소속부대 지휘관들은 가물로 바닥이 드러난 저수지의 물보장을 위한 물길건설을 짧은 시일내에 끝낼 전투목표를 세우고 군인들을 불러일으켰다. 물이 차오르는 현장에서 흙을 파내야 하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한덩어리가 되여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굴착전투를 벌리였다.

이들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군인본때, 군인기질로 기존공식으로써는 상상도 할수 없는 속도로 공사를 내밀고있다. 그리하여 첫날의 단 10시간동안에 수백m의 물길공사를 해제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인민군 김영식소속부대 군인들도 가물피해막이전투장으로 자기들을 불러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높은 공사실적으로 화답해나서고있다. 산등성이를 짜아 물길을 건설해야 하는 어려운 공사과제이지만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한덩어리가 되여 공격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며 전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맞들이와 마대로 백열전을 벌려가는 속에서 누가 장령이고 군관이며 전사인지 가려볼수 없다. 모두가 밤이 깊어가도 전투를 중단없이 벌리고있다.

장출기를 따고 많은 량의 물원천을 마련한 조선인민군 리학철소속부대 군인들은 물보장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물보장이자 가물피해막이성과라고 하면서 륜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부쩍 높이고있다. 부대지휘관들과 운전사들은 전투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결사의 각오를 안고 련속공격전을 들이대며 매일 수백m³의 물을 날라 포전에 뿌리고있다.

평안남도가물피해막이전투장에서 울려퍼지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장엄한 진군포성은 다수확운동에 떨쳐나선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옹진군가물피해막이전투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대중운동으로 경제강국건설 힘있게 추동

평안북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동맹과 직맹, 농근맹, 녀맹조직들이 총발동되여 대고조진군으로 전 동맹이 부글부글 끓게 하며 동맹원들모두가 혁신자, 만리마속도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이 벌어지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도안의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돌격대활동과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운동, 좋은일하기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백학룡동무를 비롯한 도청년동맹위원회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지난 3월 청년들의 힘으로 백마—철산물길가시기전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동천군을 비롯한 6개 군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돌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에 백마—철산물길의 5만여m의 구간에서 3만여m³의 토량을 처리하면서 물길가시기를 진행하여 농업생산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또한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농촌청년작업반, 청년분조들에서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실어내기 위한 전투를 벌리도록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염주군 내중협동농장 청년분조를 비롯한 많은 청년작업반, 청년분조들에서 수천정보의 논과 밭들에 9만여t의 질좋은 거름을 실어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작업반, 청년분조들에서 곤단배풀배와 미꾸라지양어를 동시에 할수 있는 100m²의 양어장을 건설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신의주시 석하협동농장 청년작업반을 비롯한 청년작업반, 청년분조들에 미꾸라지양어장을 훌륭히 꾸려놓도록 하였다.

청년대학생들속에서도 도안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돌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경제강국건설을 적극 추동하였다. 지난 겨울방학기간에 도안의 청년동맹일군들과 평북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수백명의 청년대학생들은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룡등탄광과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홍건도간석지 2단계건설장에 달려나가 지원물자들을 넘겨주고 현장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려 탄부들과 간석지건설자들을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로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경제강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를 맞으며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지난 4월초까지 도안의 20여개 시, 군의 청소년학생들이 150t의 파철을 모아 《소년》호유압식굴착기 3대를 만들어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였다.

격동적인 현실에 맞게 대중운동을 과감하게 전개하고있는 도청년동맹위원회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르는 곳마다 청년판으로 흥성거리고 증산투쟁, 돌격투쟁이 과감하게 벌어져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자주의 기치높이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히신 업적 영원불멸하리

력사적인 카륜회의기념일을 맞으며

주체의 기치, 자주의 기치!

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부터 세대와 년대를 이어 빛나는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력사와 현실이 이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력사적인 카륜회의가 진행된 때로부터 87돐기의 년륜이 새겨졌다.

이날을 맞는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자주의 기치높이 조선혁명을 백승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경모의 정으로 더욱 불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자주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고 빛내이신 탁월하고 세련된 혁명의 령도자이시다.》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구현해오신 혁명신조이고 혁명방식이였으며 혁명실천이였다. 오늘도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절세위인상의 뚜렷한 상징으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대어로 빛을 뿌리고있다.

짓밟힌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투쟁의 나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립장을 확립하시고 로선상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립해나가시였다.

이에 토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9(1930)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카륜의 진명학교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조성된 정세와 선행운동의 력사적교훈을 분석총화하시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조직동원되여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불멸의 지침을 밝혀주시였다.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조직동원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제국주의는 자체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으로 하여 식민지에서 절대로 스스로 물러가지 않으며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례외없이 야수적인 폭력에 매달리고있다고 하신 우리 수령님의 보고에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은 혁명무력으로 때려부셔야 한다는 선군혁명의 원리도 뚜렷이 명시되여있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원리를 구현하시여 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

투철한 자주의 신념을 안으시고 조선혁명의 기본임무와 성격, 동력과 대상, 전략적과업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회의참가자들의 환희와 격정이 삼삼히 어려와 우리의 가슴 더욱 벅차오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밝히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이나 사회주의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류형의 사회혁명이였다. 이 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을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는 심각한 사회적변혁으로서 식민지, 반식민지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이였다.

당시 혁명이라고 하면 부르죠아혁명이나 사회주의혁명밖에 없는것으로 알고있던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규정하신데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해하며 격찬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으로 혁명적당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 역시 회의참가자들의 심금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조선공산당의 해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건전한 토대우에서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파분자들처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당장 당창건을 선포하려 하거나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려 할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체의 힘으로 새로운 혁명적당을 창건하여야 한다는 고귀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당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충분한 준비밑에 당의 기층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며 그 준비사업을 반드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어려있는것이 바로 투철한 자주의 신념이였고 회의참가자들은 그이의 로선과 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그 시절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 후날 우리가 카륜에서 이처럼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선포할수 있었던것은 길림시절에 이미 청년학생운동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립장과 태도를 확립하고 공산주의운동의 새 길을 개척해왔기때문이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회고하시였다.

나는 투쟁의 나날에 싹트고 옥중에서 무르익힌 그 사상과 립장을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을뿐이다. 그것이 곧 우리 혁명의 로선으로 되고 지도사상으로 되였다. 우리가 그 론문에서 전개한 내용을 보면 모두가 주체사상을 핵으로 하였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륜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을 밝히신것은 주체사상의 창시와 주체적인 혁명로선의 탄생을 선포한 력사사변이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륜회의에서 밝혀주신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원리, 그를 구현한 모든 로선과 방침은 주체사상을 핵으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선군사상에 기초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카륜회의가 진행된 나날을 돌이켜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서 하나의 봉우리를 이루는것은 카륜회의를 계기로 하여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을 정립해놓은것이였다, 카륜회의 결정에는 《ㅌ.ㄷ》와 공청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원칙으로 삼아야 할 전략들이 명시되여있었다, 그것은 새형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상적기초로 되였으며 실패와 좌절의 진통속에서 오래동안 갈길을 찾아 암중모색하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지침으로 되였다라고 의미깊게 추억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명시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은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밑에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가지고 가시밭길을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 혁명의 길에 확고히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선혁명의 진로!

그것은 자주정치의 대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신념의 고귀한 산아였고 그이의 정력적인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망국의 그 세월 투쟁의 진로를 찾지 못해 이 땅의 사람들이 흘린 피는 얼마였던가. 만국평화회의장에서 선혈을 뿌리며 독립을 청원해보기도 하였다. 가증스러운 일제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으로 침략의 원흉의 가슴팍에 총탄을 퍼부어도 보았다. 3.1인민봉기에 떨쳐나 독립만세를 피타게 부르짖어도 보았다. 그러나 차례진것은 실패와 좌절뿐이였다.

옥중에서도 지나온 력사를 해부학적으로 분석총화하시며 새로운 지도사상의 창시와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을 두고 골똘히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을 하는것만큼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것, 조선의 산 현실에 부합되는 옳은 지도리론을 내놓자면 고전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절대시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심원한 뜻을 더욱 굳히시였다. 사대와 교조가 범람하던 그 시기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여 인민이라는 거창한 대하속에서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립장을 정립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는 력사적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카륜회의를 계기로 우리 인민은 혁명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민족해방과 주체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전세계에서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길이 열리게 되였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거대한 력사적공적이 있는것이다.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항일, 반미대전에서 기적적승리를 떨치며 승승장구하여온 조선혁명의 전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주체적로선과 방침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오늘 자주는 선군조선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백승의 기치로 세기와 세기를 이어 빛나고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그이께서는 사대와 교조, 지배주의가 만연되던 지난 세기에 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 수령님의 결단도 참으로 위대하였지만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살판치는 그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 시종일관 자주적대를 굳히지 않으시고 우리 혁명위업을 배심있게 떠밀어오신 수령님의 혁명위업은 현대사에 특기할 기적이였다고 칭송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이으시여 자주의 기치높이 조국과 혁명을 수호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은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가 가는 길은 주체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이다. 주체는 조선혁명의 영원한 진로이다.

본사기자 김 인 선

찬비를 맞으며 찾으신 전적지

주체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그 불멸의 전통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켜나가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였다.

이 불변의 신념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길, 바치신 로고는 그 얼마이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신 수령님의 가장 친근한 혁명동지, 가장 충직한 혁명전우이시였다.》

주체60(1971)년 9월 어느날 백두산지구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른아침 청봉숙영지를 찾으시였다.

마중나온 일군들과 강사들은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다.

북방의 차디찬 가을비가 때아니게 억수로 쏟아져내리고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보러 왔다고 하시면서 흔연히 앞장서시였다.

강사들은 잠시라도 비를 그었으면 좋겠다고 그이께 청을 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배우러 혁명전적지에 찾아왔는데 비를 좀 맞으면 어떤가고 하시며 그냥 걸음을 옮기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으시여 일군들에게 동상을 정중히 모실뿐아니라 철저히 보위할 방향과 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구호나무관리정형에 대해서도 세세히 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비가 계속 내리고있는것으로 하여 일군들의 마음은 송구하기 그지없었건만 그이의 걸음을 멈춰세울수 없었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발자취를 그려보시는듯 그이께서는 불무지자리에서도, 밥짓던 자리에서도 쉬이 걸음을 떼지 못하시였다.

울창한 밀림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무심히 스치지 않으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께서 문득 멈춰서시였다.

일군들과 강사들은 영문을 알수 없었다.

그곳에는 껍질이 벗겨진 수수한 아름드리나무 한그루 뿐 아무런 유적유물도 보이지 않았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항일유격대원들이 잠을 잘 때에는 나무껍질을 벗겨 방바닥에 깔고 잤다고, 이 한가지 사실만 놓고보아도 항일무장투쟁이 얼마나 간고하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새겨안는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일제의 100만대군을 쳐부시고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다시금 새겨주시며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를 더 잘 꾸리고 관리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는 위대한 장군님.

정녕 그이의 모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맞고맞으신 백두의 눈비를 마음속으로 다 맞으시며 항일의 옛 전장을 밟으시는 위대한 빨찌산의 아들의 모습으로 일군들의 가슴속에 숭엄히 새겨졌다.

본사기자 전 광 남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김 광 림 찍음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이것은 백두산장군들을 높이 모시고 모진 고난과 시련을 뚫고 백승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력사가 확증한 진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투쟁이 있는 곳에 노래가 있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습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거창한 투쟁과 전진으로 비약의 열풍 몰아치는 이 땅우에 노래가 울린다. 시련과 역경을 뚫고 전진하는 이 땅우에 높이 울려퍼지는 노래의 의미는 실로 비상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엄혹한 난관을 박차며 나아가던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대단한것을 내려보내주겠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이 받아안은것은 무엇이였던가. 노래였다. 천만이 총폭탄되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신념을 그대로 담은 노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내려보내주신 노래를 받아안은 일군들의 가슴은 승리의 신심과 열정으로 끓어번지였다.

노래는 선군혁명총진군길우에 울려퍼지며 온 나라 천만군민을 투쟁과 전진, 승리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하였다.

언제인가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것은 하나의 진리이라고 하시며 이것이 바로 자신께서 말하는 노래의 철학이라고 하시였다.

가는 길 험난해도 투쟁의 노래높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고가실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천만리길을 헤치시였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초소의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안고가신것은 노래였다.

자강도를 찾으실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노래로 자강땅을 뒤흔드시였다.

고난과 시련이 엄혹할수록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려퍼진 선군조선의 노래, 어제도 오늘도 투쟁과 전진의 길우에 메아리치는 노래들에 얼마나 심원한 뜻이 빛발치고있는것인가.

불철주야의 정력적인 령도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여도 적들과 끝까지 싸워 단연 결판을 낼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조선식철학, 조선식음악철학이 있다고 하시며 음악은 사람들에게 생의 희열과 혁명적열정을 안겨주고 투쟁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이라고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투쟁속에 노래가 있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고 확신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쉬임없이 헤치시는 전선길에서 초소군인들의 노래도 들어주시고 군인들이 혁명적인 노래와 시, 춤으로 열정의 피를 끓이며 선군혁명의 한길을 따라 과감히 전진하는 사상의 강자, 락관의 투사들로 준비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신 위대한 장군님.

온 나라의 일터들을 찾고찾으시여 인민들이 부르는 노래에서 더 큰 힘을 얻으시며 애국의 의지를 더욱 굳히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친히 초소와 일터에 찾아오시여 가는 길 험난해도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살며 싸워나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으로 가슴 불태우며 오늘도 이 땅의 천만군민은 애국충정의 땀과 마음을 소중히 바쳐가고있다.

혁명의 노래높이 백승을 떨쳐온 력사는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오늘도 정력적으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선길, 현지지도의 길우에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퍼진다.

정녕 그것은 위대한 백두산장군을 높이 모시여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메아리이다.

본사기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네팔련방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릴라 마니 뽀우드얄 주조 네팔련방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최희철 외무성 부상과 네팔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은률광산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위대성교양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이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과 선동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에 대한 학습을 깊이있게 진행하고 대중속에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떠밀어주고있다.

얼마전 쇠돌생산으로 들끓는 현장에 나간 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거룩한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장장 수십성상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데 대하여 사실자료와 결부하여 실감있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였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은 생산성과로 받들어갈 굳은 결의를 안고 날마다 혁신을 이룩해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심 운 섭

* *

개천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신념교양을 더욱 심화시켜 그들모두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일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이를 위해 초급당위원회는 매월, 매 분기 당초급일군들과 당초급선전일군들에게 신념교양을 심화시켜나가기 위한 사업방향을 주었다. 그리고 종업원들속에서 신념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가게 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탄광안의 당초급선전일군들은 증산돌격전이 벌어지고있는 막장과 전투현장에 들어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연구발표모임과 노래보급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당일군들이 실천적모범을 보이고있다.

갱막장에 들어간 초급당일군들은 탄부들과 일도 같이하고 휴식참을 리용하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필승의 신념》과 예술영화 《하루를 앞두고》의 기본내용을 해설해주면서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강도 일제와 싸워이긴 항일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격식과 틀이 없이 진행하는 신념교양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 떨쳐나선 탄부들과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고있다.

로농통신원 전 순 희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반제계급교양

오늘 자력자강의 기치드높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장용한 기상에 질겁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온갖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년대와 세기를 이어온 반제반미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의 승리는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습니다.》

반제계급교양은 사회주의건설의 전 행정에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물론 혁명과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반제계급교양의 형식과 방법은 달라질수도 있다. 그러나 단 한시도, 어느 한순간도 늦추거나 소홀히 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이 다그쳐질수록 더욱 강도높이 벌려야 하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힘찬 전진을 한사코 막아보려고 무분별한 전쟁소동과 사상 최대의 야만적인 제재봉쇄책동에 매달리며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그러나 원쑤에 대한 증오심과 멸적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천만군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우리의 자강력은 더욱 증대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은 비약적인 속도로 다그쳐지고있다. 현실은 사람들의 심장속에 반제계급의식을 억척같이 쪼아박는 사상의 정대, 마치와 같은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수록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이 더욱 줄기차게 전진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제계급교양은 우선 새 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키우기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다.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위업인것만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최대의 중대사는 앞날의 역군들을 훌륭히 키우는것이다.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전쟁의 엄혹한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을 강성조선을 떠메고나갈 기둥감들로 키우자면 그들속에 반제계급의식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담보가 있다.

후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온갖 조건을 다 마련해주고있는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떠받들리우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가고있다. 지금 적들은 1US$의 대외선전비용은 5US$의 국방비용과 맞먹는다고 공공연히 떠벌이며 썩어빠진 양키식가치관과 반동적인 사상문화적독소로 청소년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적들의 책동에 말려들면 초보적인 도덕도, 량심과 의리도 모르고 저 하나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도 서슴없이 팔아먹는 인간쓰레기, 정신적불구자로 전락되게 된다는것이 력사의 교훈이다.

계급의식은 유전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침략의 주역을 놀고있는 오늘 혁명의 대, 계급의 대는 계급적토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도높은 사상교양, 계급교양에 의하여 이어지게 된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새 세대들에게 투철한 반제계급의식과 주적관을 깊이 심어주어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해치려는자들은 그가 누구든 무자비하게 쳐갈기는 계급의 전위투사,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억척같이 다지고 계급투쟁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는 길이다.

반제계급교양은 또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이 다그쳐질수록 계급투쟁은 더욱 치렬해진다. 그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곧 제국주의와 반동적착취계급의 파멸을 의미하기때문이다. 하기에 적들이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한사코 가로막아보려고 피를 물고 미쳐 날뛰고있는것이다.

진정한 반제계급의식은 자기 조국, 자기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을 백배해준다.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적개심이 높을수록 자기의것을 더욱 빛내어나가려는 자각과 의지가 강해지며 자력자강의 정신도 더 높이 발휘하게 된다.

우리가 전후복구건설시기 안팎에서 준동하는 원쑤들의 도전을 물리치며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는 재더미우에서 천리마를 탄생시키고 고난의 행군시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사회주의를 지키며 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할수 있은것은 전체 군대와 인민의 계급적관점과 립장, 원쑤와의 대결에서 반드시 이기려는 결사의 각오가 투철하였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조국은 반제자주의 보루, 사회주의의 성새로 위용떨치며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해나가고있다. 눈앞에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질수록, 승리가 가까와올수록 반제계급교양을 강도높이 벌리는 여기에 천만군민모두를 영예로운 승리자로 되게 하는 길이 있다. 최후승리는 억척불변의 반제계급의식을 지닌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의것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의 도수를 끊임없이 높이나감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할것이다.

김 성 남

군민협동작전으로 가물과의 전투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전야에 생명수를!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는다

조선인민군 박석범소속부대 군인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은 그 어떤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당중앙과 영원히 사상과 뜻, 운명을 같이하는 진정한 혁명동지, 혁명전우가 되여야 하며 당중앙을 결사보위하는 천겹만겹의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야 합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중산군안의 가물피해막이전투장들을 즉시에 타고앉은 조선인민군 박석범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들의 심장은 세차게 달아올랐다. 그 뜨거운 열정이 양수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메말라가던 포전을 적셨다.

그뿐이 아니였다. 석다협동농장 제7, 8작업반의 수십정보 간석지논들을 살려내기 위해 흐르는 물속에서 벌어진 연 이틀간의 1천여㎥의 토량처리와 물풀제거전투, 신흥협동농장 제9작업반의 논에 생명수가 흘러들수 있도록 단 하루동안에 해제낀 2 400여㎥의 토량처리전투…

조건이 불리하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이들이 순간이나마 공격속도를 늦춘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아니였다.

《알았습니다!》, 이 한마디 대답과 함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력군, 돌격대의 위력을 계속 높이 떨쳐온 이들의 진격로에는 단 한치의 편차도 없었다.

아름찬 새 전투목표가 세워졌을 때였다. 그것은 바다로 흐르던 하천의 물을 어느 한 협동농장의 물길구역으로 돌려야 하는 전투였다. 이렇게 되면 군적으로 제일 우려되는 수백정보의 논에 대한 가물피해를 막을수 있었다.

헐치 않은 과제였다. 하지만 산을 통채로 떼옮겨서라도 기어이 드넓은 대지에 생명수를 보내줄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는 병사들은 알찬 벼이삭들이 설레이는 풍년가을을 그려보았다.

현장에서 긴급협의회가 열리였다. 콩크리트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자면 두달이상 걸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부대지휘관들은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었다.

시간쟁취, 바로 여기에 분초를 다투는 가물피해막이전투의 승패가 달려있었기때문이였다. 협의회에서는 3천여개의 흙가마니로 하천의 흐름을 차단하자는데로 모두의 의견이 합쳐졌다. 립체전을 벌려 물길바닥에 쌓인 수천㎥의 잡량처리도 24시간안으로 결속할데 대한 안도 함께 토의되였다.

부대정치일군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가물피해막이전투는 당의 사상관철전,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입니다. 우리모두 자연과의 격전, 가물과의 투쟁에서도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 풍년가을을 기어이 펼쳐놓읍시다.》

탐스럽게 익은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아 격동된 지휘관들모두가 호응해나섰다.

부대는 총공격전투에 진입하였다. 립체적으로 벌어진 전투는 시작부터 치렬했다. 흙을 가득채운 가마니들이 하천의 해당 위치에 련속 쌓이고 또 쌓이였다. 드디여 바다로 덧없이 흐르던 하천이 흐름을 멈추었다.

락생협동농장에서 수천㎥의 토량을 처리하여 물길바닥을 70cm정도 더 낮추기 위한 전투 역시 어려웠다.

굴착기나 삽차를 리용할 형편도 못되였다. 그만큼 물길바닥은 사람도 들어서기 힘든 감탕판이였던것이다.

물러서겠는가 아니면 맞받아나가겠는가?

이 두 길중에서 군인들은 주저없이 맞받아나가 승리자로 영예떨치는 길을 선택하였다. 당의 부름에 심장을 서슴없이 내대줄아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만이 내릴수 있는 결심이였다.

무릎을 치는 해묵은 감탕판과의 백열전이 벌어졌다.

최고사령관기가 펄펄 휘날리는 전투장에서는 지휘관과 병사가 따로 없었다.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앞장에서 일자리를 쭉쭉 낸 지휘관들, 말은 감탕구간을 이악하게 극복해나간 군인들, 구대원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말없는 승벽을 부린 신입병사들…

시간이 갈수록 작업조건은 계속 불리해졌지만 결사의 각오를 심장마다에 만장약한 이들의 전진속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노래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를 부르며 삽을 총대마냥 틀어쥐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바쳐나갔다.

부대장병들은 며칠은 실히 걸려야 한다던 이 공사를 순수 사람의 힘으로 단 15시간만에 결속함으로써 끝끝내 승리의 기발을 펄펄 휘날렸다. 그리하여 락생, 쌍제협동농장 수백정보의 논을 혹심한 가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게 되였다.

가을은 아직 멀리에 있다. 하지만 오직 당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심장으로 듣는다.

가을날 누렇게 익어가는 벼이삭들의 설레임소리와 더불어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에서 드높이 울려퍼질 대승전고를.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불가능을 모르는 공격정신

운 전 군 에 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운전군 가물피해막이전투장의 한복판에 서있다.

지금 포전들에서는 당정책옹위전,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 자연과의 전쟁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에 결사의 실천으로 화답할 결의가 어린 《자력자강》, 《만리마속도》 등과 같은 격동적인 표어들을 포전마다 게시하여놓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 기어이 자연과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신심이 넘치고있다.

폭양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물바께쯔를 들고 달리며 농장원들을 불러일으킨 군책임일군들, 가물피해막이전투는 자신들의 충정심을 검증받는 중요한 계기라고 하면서 맨 앞장에서 달린 군급기관 일군들…

넓은 포전들의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가물과의 투쟁의 맨 앞장에는 언제나 일군들이 서있다.

《우리 어깨우에 올해농사의 운명이 지워져있습니다. 누구나 당정책결사관철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가물과의 투쟁에 나선다면 얼마든지 이 난관을 극복하고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수 있습니다.》

물통을 지고 대오의 앞장에서 달리며 힘있게 외치는 군당위원장의 목소리에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호응해나선다.

가장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대는 책임일군들의 이신작칙은 말없이 울리는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소리인것이다.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기어이 승전고를 울려 우리 운전군 사람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을 보여줍시다.》

방송원의 열띤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속에 전투장 곳곳에서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포전들마다 당정책결사관철의 의지를 만장약하고 물통을 지고 달리는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차넘치고있다. 우리 당의 권위, 우리 조국의 존엄을 쌀로써 빛내일 일념으로 산악같이 떨쳐나 투쟁하여온 이들의 드높은 열의는 하늘에 닿고있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이런 배짱안고 분발해나선 이들은 강물을 퐁퐁 퍼올려서라도 강냉이포기들을 살려낼 의지로 전투를 벌리고있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포전의 전투장들마다에 물을 날라가는 모습은 전화의 나날 포탄이 작렬하는 속에서도 고지우로 식량을 나르던 애국농민들의 모습그대로이다. 지난 하루동안에만도 군안의 협동농장들은 물론 기관,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인민반원들이 총동원되여 150여정보의 논밭에 물주기를 진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섰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가물피해막이전투에 떨쳐나선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전진을 그 어떤 힘으로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전투적인 화선선동으로 고무추동

중앙예술단체의 예술인들과 여러 단위 예술선전대원들

온 나라가 가물피해막이전투에 떨쳐나설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중앙예술단체의 예술인들과 여러 단위의 예술선전대원들이 들끓는 사회주의협동벌에 달려나가 화선선동의 북소리를 드세차게 울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6월 29일현재 만수대예술단, 피바다가극단, 국립연극단, 국립민족예술단, 국립교예단, 영화예술인경제선동대, 중앙예술경제선전대, 청년중앙예술선전대,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 녀맹중앙예술선전대, 농근맹중앙예술선전대의 예술인들과 예술선전대원들이 수십개 단위에 나가 수만명을 대상으로 화선식경제선동활동을 진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선동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위력한 수단입니다.》

문화성과 각 예술단체의 일군들은 전투적인 경제선동활동으로 대중을 가물과의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각 단위 예술인들과 예술선전대원들은 가물피해막이전투로 들끓는 사회주의협동벌들로 달려나가 일제히 경제선동의 포문을 열었다.

만수대예술단의 예술인들은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로력적위훈을 떨쳐가고있는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고무하기 위하여 개성시의 여러 협동농장들에서 기동성있는 공연무대를 펼치고있다.

노래 《우리는 만리마기수》,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만담 《우리 집 사람》 등 다채로운 종목들로 구성된 경제선동공연은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의 공연을 본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은 정책적으로나 예술적으로 훌륭한 공연이다, 우리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공연을 보면서 우리 당이 지금 무엇을 호소하고있으며 그 호소에 화답하여 우리가 어떻게 떨쳐나서야 하는가를 다시금 새겨안았다고 하면서 가물과의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떳떳이 맞이할 불같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피바다가극단과 국립연극단, 국립교예단의 예술인들로 무어진 경제선동대원들은 안악군의 여러 협동농장들에서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가물과의 전투를 진행하면서 다채로운 공연무대를 펼쳐 그들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공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국립민족예술단과 국립교예단의 예술인들로 무어진 경제선동대원들은 배천군의 여러 협동농장들에 나가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며 화선선동의 힘찬 포성을 울려가고있다.

영화예술인경제선동대원들과 중앙예술경제선전대, 청년중앙예술선전대,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 농근맹중앙예술선전대, 녀맹중앙예술선전대원들도 황해남도와 황해북도의 협동농장들에서 혁명의 북소리, 투쟁의 노래소리를 높이 울리며 전투장을 들썩하게 하고있다.

가물피해막이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설 불타는 일념을 안고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투쟁열의를 더욱 고조시키며 중앙예술단체의 예술인들과 여러 단위 예술선전대원들은 경제선동활동무대를 계속 넓혀나가고있다.

군대와 인민이 한전호에서 어깨겯고

수 안 군 에 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입니다.》

최근 며칠동안에 수안군안의 협동농장들에는 수십개의 큰 포전물주머니들이 생겨났다. 이 물주머니 하나에 수십-100여㎥의 물을 넣을수 있다. 특달리 가물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수백정보 포전들의 주변에 이 물주머니가 생겨남으로써 가물을 이겨낼수 있게 되였다.

이 물주머니의 덕을 농작물비배관리에서 톡톡히 보고있다.

농장들에서는 물에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뇨소액 등을 섞어 영양액을 만든 다음 분무기에 련결한 원주필대모양의 관을 강냉이뿌리부분에 꽂고 주입하는 방법을 받아들이였다. 이렇게 하면 포기당 물을 충분히 준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수 있다. 뿐만아니라 강냉이의 영양상태도 좋아지게 된다.

이 방법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농장들에서는 수백개의 분무기를 더 확보하였다. 수십개의 포전물주머니가 마련됨으로써 이 분무기들의 리용에 충분한 물을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이처럼 덕을 보고있는 포전물주머니들마다에는 사회주의결사수호정신이 깃들어있다.

물보장조건이 불리한 수백정보의 포전을 돌아볼 때 군일군들의 가슴에서는 걱정이 아니라 신념이 끓어번지였다.

쌀로써 사회주의를 지키자면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것을 명심한 그들은 방도를 찾아냈다. 조건이 불리한 포전들에는 큰 물주머니들을 만들어놓고 물을 지속적으로 주기로 하였다.

당면한 영농공정을 내밀면서 진흙다짐과 석축을 하여 부피가 큰 물주머니들을 만들자면 말그대로 뭄이 열두조각 날 각오를 해야 하였다. 매일 새벽 4시부터 결사전이 벌어졌다.

전투는 갈수록 힘겨워졌다.

그러나 물러설 길은 없었다.

사회주의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이 생활의 진리를 뼈에 새기고 억척같이 전진하였다.

가물피해막이전투장으로 달려나온 인민군군인들이 그들과 어깨겯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자연의 횡포를 앞장에서 물리쳐나갔다. 천암협동농장에 나간 군인들은 가물피해를 막고 조국의 전야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각오밑에 중기계를 동원하여 땅을 파제끼고 가물이 움쩍 못하게 큼직한 물주머니를 만들었다.

지원자들도 적극 떨쳐나선 가운데 며칠동안에 수십개의 포전물주머니를 만들게 되였다.

아침과 저녁시간에 뜨락또르와 달구지를 비롯한 각종 륜전기재가 동원되어 보막이를 한 강하천의 물을 이 물주머니들에 채웠다.

군인들과 농장원들, 지원자들은 지금 강냉이와 콩을 비롯한 곡식들에 푸르싱싱한 기운이 뻗칠때까지 포기마다 물을 주고있다. 군민이 하나로 뭉친 힘앞에 하늘도 머리를 숙이고있다.

강 령 군 에 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은 즉시 국가계획위원회 당, 행정책임일군들과 정무원들은 10대의 소형양수기와 배낭식분무기, 관 등을 싣고 강령군 광천협동농장에 달려나와 가물과의 전투를 시작하였다. 며칠이 지나 물주머니들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긴급협의회가 열리였다.

책임일군이 절절히 말하였다.

《가물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우리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물원천을 기어이 찾아냅시다.》

일군들은 즉시에 물원천을 찾기 위한 현지답사의 길에 올랐다. 밤은 퍽 깊었으나 전지불을 켜들고 횃불을 추켜든 박정원, 박만용, 김정섭동무를 비롯한 국가계획위원회 일군들은 주변의 산발과 습지들을 모조리 훑어나갔다.

10여리 떨어진 곳에 많은 고인물이 있는것을 발견한 일군들은 즉시 물을 퍼올리기 위한 전투에 진입하였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농장에 나와있던 인민군군인들이 달려왔다. 군민협동작전으로 단 1시간동안에 10여리의 물길이 정리되여 포전으로 생명수가 흘러들게 되었다. 이들의 완강한 투쟁기풍을 목격한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이런 정신력이면 하늘도 이길수 있다고.

단 하루동안에

조선인민군 리종식소속부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받들어 앞으로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선구자, 본보기가 되여야 합니다.》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이룩되고있는 혁신의 새 소식을 전하기 위해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개성시에서 장풍군으로 뻗어나간 도로 오른쪽에 흐르는 하천에 보막이를 하고 한편으로 물길을 내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의 투쟁모습을 보게 되였다.

장풍군 덕암협동농장의 가물피해막이전투에 진입하여 본때를 보이고있는 조선인민군 리종식소속부대 군인들이였다.

사실 이 주변에 있는 이곳 농장 청년종축작업반 10여정보의 포전은 물보장조건이 나빴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물길공사와 보막이를 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봄철영농전투와 긴장한 로력사정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로 하여 지금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가물까지 들이닥쳐 물보장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대지휘관들이 그 공사를 자진하여 맡아나섰다. 즉시 부대지휘관들은 보막이와 물길공사를 최단기일내에 끝내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으며 온 부대가 지체없이 공사에 돌입하였다.

공사장 곳곳에 휘날리는 최고사령관기와 붉은기들이며 《사회주의수호전》, 《결사관철》, 《혁신부대의 본때로》 등 힘있는 글발들이 나붙은 이동식속보판들, 방송기재에서 울려나오는 힘찬 혁명군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언제나 선구자, 본보기의 영예를 높이 떨쳐온 인민군군인들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공사장은 말그대로 치렬한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한쪽에서 가슴을 치는 물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어가 돌을 쩌내올릴 때 다른쪽에서는 흙마대를 지고 달리고있었다. 박자를 맞춰 엇바꾸어가면서 힘있게 함마질을 하는가 하면 불이 번쩍 나게 삽질을 하여 흙을 퍼올리고 마대에 담아주는 인민군군인들의 모습도 볼수 있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는 점점 높아지고 물길바닥은 낮아졌다.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인민군군인들의 일솜씨, 투쟁본때가 달랐다.

드디여 그들은 단 하루동안에 500㎥이상의 막돌과 흙을 운반하여 보막이를 하고 2 000m의 물길을 내여 청년종축작업반의 포전에 물을 댈수 있게 해놓았다. 보에 막혀 차오르는 물을 바라보는 인민군군인들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서도 언제나 선구자적역할을 다해나갈 열의가 이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용솟음쳤다.

－ 문 덕 군 에 서 －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 우리 포전

중앙은행 일군들과 근로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중앙은행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당정책옹위전, 사회주의조국존엄사수전인 가물피해막이전투의 앞장에서 깨끗한 량심과 애국충정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스스로 만짐을 지고

50대의 원동기가 달린 이동식양수기와 1 150여개의 분무기, 뜨락또르뒤다이야 20개, 착정호스 100m…

이것은 중앙은행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령군의 가물피해막이전투장에 안고나간 설비와 영농물자들중의 일부이다.

사실 이들앞에 맡겨진 과제는 21대의 원동기가 달린 이동식양수기를 보장하는것뿐이였다. 하지만 가물피해막이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접한 즉시 강령군에 달려가 구체적인 실정을 료해하는 과정에 이곳 일군들은 긴급히 요구되는 설비와 자재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만 하여도 간단치 않았다.

그러나 이곳 일군들은 주저없이 더 많은 짐을 스스로 떠메고나섰다.

《당에서 직정하는 문제, 조국과 인민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앞에서 우리가 언제 타산을 앞세운적이 있었습니까?》

당과 언제나 숨결을 함께 하며 당의 뜻을 앞장에서 실천으로 받들어온 지난날이 가슴뿌듯이 되새겨지는듯 총재 김천균동무가 당일군인 리회선동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제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힘을 주어 고맙습니다. 당위원장동무, 당장 보내줍시다. 아니, 제가 직접 오늘중으로 싣고 떠나겠습니다.》

그날 당정책옹위전, 사회주의조국존엄사수전의 최전방인 가물피해막이전투장들을 향해 전속으로 달리는 수많은 차들의 전렬에는 중앙은행의 차들이 있었다.

심장의 피를 쏟아부어서라도

《제 한몸만 생각하며 전투대오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우리 시대 청년이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겠습니까.》

《자기때문에 시대의 락오자가 되여서야 되겠는가고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더 먼저 등을 떠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앞을 다투며 자진하여 떨쳐나선 배룡혁, 리승렬, 리윤철동무를 비롯한 수십명의 지원자들이 스스로 정한 전투좌지는 읍에서도 70여리나 떨어진 최남단의 금동협동농장이였다.

조건은 몹시 불리하였다. 4t짜리 물차가 좁고 험한 길로 왕복 30리를 달리며 한번 날라오는 물로 적시는 땅이 얼마 안되는데다 그나마도 토양조건이 나쁘고 가물을 세게 탔던탓에 몇분 안되여 쪽 잦아들어 물준 뒤가 없었다. 더우기 난감한것은 시간이 감에 따라 저수지와 우물들의 물이 마르면서 음료수와 생활용수보장조건까지 어려워지는것이였다.

하지만 이들은 횡포한 자연의 도전앞에 물러서지 않고 이른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물주기와 논바닥긁어주기를 진행하며 결사전을 벌렸다.

어느날 이른아침 전투현장으로 향하던 장삼용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비닐물병을 기울여 포기마다 물을 주는 김광애동무를 비롯한 녀동무들을 보게 되였다. 무더운 여름철에 남달리 물을 많이 써야 하는 녀성들이 자기들앞에 차례진 생활용수마저 아꼈다가 벼포기들에 주는 그 모습은 정녕 가렬한 전화의 나날 불타는 고지우에서 마지막 한모금의 물마저 애출포기에 부어주던 전선용사들의 숭고한 화폭그대로였다.

그날부터 지원자들 누구나 자기들에게 차례진 생활용수까지 안고나가 포전을 적셔주었다. 심장의 피를 짱그리 쏟아부어서라도 한포기의 벼를 더 살려내고 사랑하는 조국의 전야를 더 푸르게 하려는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그대로 생명수로 흘러드는가 지금 협동벌은 하루가 다르게 푹푹 짙고 날을 따라 푸르러가고있다.

첫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강서구역 수산협동농장 일군들

아직은 어둠이 채 가셔지지 않은 이른새벽이다. 그러나 강서구역 수산협동농장에서는 가물이 심한 강냉이밭에 물주기가 한창이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도 닦을념 하지 않고 앞서거니뒤서거니 부지런히 물주기를 다그쳐나가는 이 첫새벽의 주인들은 누구인가.

맨 앞장에서 밭고랑을 타고나가는 관리위원장 리철수동무며 한포기에 물을 주어도 땅이 푹 젖도록 정성을 다해가는 리당위원장 독고철동무의 실농군다운 모습도 안겨온다. 무슨 일에서나 뒤지기 질색하는 관리위원회 부원 강금화동무에게 그만 이악을 부리고 좀 쉬였다 하라고 하는 다심한 목소리의 임자는 기사장 김영철동무이다. 오늘도 선참으로 제8작업반포전에 달려나와 새벽안개를 밀어내며 물주기전투에 진입한 리당위원회와 관리위원회일군들이다.

이것은 가물피해막이전투가 시작된 첫날부터 하루도 어김없이 계속되는 이곳 일군들의 첫새벽일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가물피해막이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한 당의 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이곳 일군들은 구체적이고 빈틈없는 작전안을 세우기 위해 사색과 연구를 깊이하였다.

그럴수록 이들의 머리속에 더욱 더 깊이 새겨지는것이 있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

력사적인 신년사의 구절구절에 담겨진 깊고깊은 뜻을 뼈에 새기며 이들은 오늘의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자기들이 서야 할 위치를 다시금 자각하였다.

그리고 확신하였다.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나간다면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나갈수 있다. 가물피해가 가장 심한 포전들을 우리 일군들이 맡아 해제끼며 가물피해막이전투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자.

이렇게 생겨난 새벽과 저녁일과였다. 이것은 농장원들을 돌격전에로 부르는 말없는 구령이 되였다.

누구나 가물피해막이전투는 단순히 자연과의 투쟁이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것을 깊이 새기고 떨쳐나 보통때의 두몫, 세몫을 하고도 성차지 않아 밤늦도록 밭고랑을 떠나지 않는 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갔다.

어느덧 어둠이 가셔진 포전에는 빈 고랑이 없이 사람들이 줄지어 늘어서서 물주기를 진행하고있다. 오늘 아침도 일군들에게 선고를 떼웠다고 하면서 너도나도 달려나와 스스로 밭고랑을 차지한 미더운 농장원들이다.

어찌 농장원들뿐이랴. 그 모습에 감동되여 떨쳐나선 사람들속에는 가두인민반원들도 있다.

일군들의 이신작칙!

이처럼 힘있는 돌격구령은 없다.

언제나 앞채를 메고 당정책관철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는 일군들의 모습은 힘찬 돌격구령을 대신하며 천백마디의 정치사업보다 더 큰 호력을 나타내는 법이다.

선군시대공로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자

준마처녀, 그 부름 빛내이며 한생을 살리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혁신자들의 생활에서

우리는 자랑한 사회주의건설자 천리마 타고서 번개처럼 달린다는 노래와 더불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천리마기수들이 태여났던가.

천리마기수 한명이 천리마기수열백을, 한개의 천리마작업반이 수백수천의 천리마작업반, 천리마공장을 탄생시킨 천리마시대처럼 한명의 만리마기수가 열백의 만리마기수, 수천수만의 만리마기수집단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만리마시대가 이 땅에 흐르고있다.

우리는 이것을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도 느낄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공장에 들어서는 우리의 눈에 제일먼저 안겨든것은 《6월 19일 현재 2년분 인민경제계획완수자 14명 배출, 열렬히 축하!》라는 글발이 새겨진 속보판이였다.

한명희, 리명순, 오경희, 김영심, 신은별, 표춘옥, 리정화동무를 비롯한 14명 혁신자들의 이름이 나붙어있었는데 맨앞에는 문장순동무의 이름이 있었다. 한참 혁신자들의 이름을 짚어내려가는데 문득 등뒤에서 이런 말이 들렸다.

《영웅이 다르긴 달라. 다른 애들이 아무리 이악을 부려도 장순일 따를 재간이 있나?》

혼자소리로 말하는 그는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 직장장 김용복동무였다. 그는 우리에게 공장적으로 년간 인민경제계획은 물론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제일먼저 수행한 문장순동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올해초 문장순동무네 집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문장순동무의 남편 김혁동무가 동생네 집에서 살던 어머니를 모셔온 날 밤이였다.

《어머니, 년세도 많으신데 일없겠습니까?》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대륙두손을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 걱정은 말아.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위해 너희들이 함께 혁신하겠다니 여기 오는 내 길음도 가볍더구나. 아무렴 영웅며느리의 뒤바라지를 하는것보다 더 큰 일이 어데 있겠니?》

손자, 손녀는 자기가 전적으로 맡겠으니 어서 빨리 공장에 나가 일손을 잡으라는 시어머니의 당부는 문장순동무에게 나래를 달아주었다. 하여 그는 어린 자식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정다운 직포기들앞에 서게 되였다.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이며 로력영웅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선군시대공로자 문장순동무의 뒤를 새 세대 혁신자들이 따라섰다.

방직종합직장 준비직장 조방공인 김주경동무는 14명 2년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들중에서 제일 나어린 처녀이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불덩이처럼 뜨거운것이 간직되여있었다.

성과의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여 새 세대 혁신자들과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8년전 그는 아직 중학생이였다. 그날 텔레비죤화면에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새 세대 혁신자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그에게 아버지는 주경이도 커서 혁신자가 되여 꼭 그런 영광을 지녀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날 그는 자기 침벽면에 모신 기념사진들을 바라보며 군사복무의 나날 위훈을 세운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여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리라 마음다지였다.

(난 꼭 저 공장에 가서 일할테야.)

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희망대로 공장에 왔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준비직장 조방공이 되였다.

잠도리무러가 말했다. 그는 양성기간에 벌써 조방기를 다루고 1년이 지나서는 기능공들과 어깨를 겨루었다. 하여 그의 이름은 혁신자의 대렬에서 빛났다. 올해에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는 잠이라는것을 모른 그였다.

《저에게 두대의 조방기를 맡겨주십시오.》

어느날 저녁 교대를 마치고 직장장을 찾아간 그가 한 말이였다.

사실 조방공 한명이 조방기 두대를 다룬 예는 그때까지 없었다.

결심을 내리지 못하는 직장장 렴성길동무의 두손을 잡고 김주경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제 결심을 막지 말아주십시오. 지금 저에게는 한대가 아니라 두대, 한교대가 아니라 두교대라도 맡아할만 한 힘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음교대부터 두대의 조방기를 맡은 김주경동무의 손에 불이 일었다. 직장속보판에는 그의 혁신적성과에 대해 쓴 글이 연방 나붙었다.

힘든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문장순영웅이라면 요만한 난관에 쓰러지지 않을거야.)라고 생각하며 일어서군 했다.

짧은 기간에 분기계획을 완수한 그는 3월 29일까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였고 6월 3일에는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게 되였다. 그의 하루실적은 500%를 넘어섰다.

나어린 조방공이 낳은 기적은 온 공장을 더 큰 혁신에로 불러일으켰다.

문장순영웅이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남먼저 수행하고 또 그 뒤를 따라 나어린 조방공 김주경동무가 혁신자의 대렬에 들어서고있을 때 방직종합직장 3정방직장에서는 두 정방공사이에 말없는 경쟁이 벌어지고있었다.

올해 22살, 25살 난 리혜심, 조향미동무들은 로동자합숙의 한호실에서 사는 정방공들이다. 어느때에는 그처럼 사이좋은 자매와도 같은 이들이지만 일단 일터에 나서면 경쟁에서 양보를 모르는 일욕심많은 처녀들이다.

오늘 리혜심동무가 하루계획을 200% 수행하면 매일 속보판에는 조향미동무가 232%의 계획을 수행한 소식이 실렸다.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며 치렬한 경쟁을 벌리고있는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직장장 김태무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목표는 앞선 사람을 따라잡자는것만이 아닙니다. 영웅직포공, 공훈방직공들처럼 새 기록을 창조하자는것입니다.》

그들은 올해 꼭같이 4년분 인민경제계획수행을 목표로 내세웠다고 한다.

정방공 조향미동무는 자신심에 넘쳐 우리에게 말했다.

《아직 우리 직장에 4년분 인민경제계획완수자가 있어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꼭 그 목표를 먼저 수행하겠습니다.》

소박하고 꾸밈없는 그 말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던가.

조국을 위해 수만리 순회길을 줄기차게 달린 영웅들처럼,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애국의 삶을 이어가는 선군시대공로자들처럼 살려는 새 세대 방직공들의 굳은 결심이였다.

이들만이 아닌 새 세대 방직공들인 남수향, 장은하, 리은호동무들이 2년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대렬에 들어섰다.

오늘도 대오의 앞장에서 새 세대들의 거울로 살고있는 어제날의 천리마기수 전옥화영웅처럼, 온 나라가 다 아는 공장의 선군시대공로자들처럼 어머니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결의에 넘쳐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계급이다.

준마처녀, 그 부름 빛내이며 한생을 살리!

이런 인생의 목표를 안고 지금이 시각도 장군님 태워주신 준마에 올라 내 한생 그 이름을 빛내며 살리라는 노래를 부르며 충정과 애국의 순회길을 쉬임없이 달리고있는 준마처녀들, 어머니조국은 이런 애국자들에 의해 전진한다. 인민은 이런 애국자들을 자랑하고 길이길이 추억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오은별

산골군의 보배공장으로

신평군세멘트공장에서

신평읍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사람들속에서 돌젼이골이라고 불리우는 자그마한 골짜기가 있다.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사방을 둘러봐도 산뿐인 이곳에 산골지형에 맞게 산중턱에서부터 기슭까지 계단식으로 내려가면서 특색있게 건설된 신평군세멘트공장이 자리잡고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기 고장에서 나는 원료로 군에서 제기되는 세멘트수요를 보장하고있는 신평군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가슴속에는 자기 공장에 대한 크나큰 긍지가 가득차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공장에서 우리가 받은 깊은 인상은 무엇이나 자체의 힘과 지혜로 해내려는 정신이 투철한것이였다. 요즈음은 세멘트를 요구하는 단위들이 더더욱 늘어나고있다고 하면서 지배인 리진국동무는 공장을 단합된 집단으로, 자력자강의 정신이 투철한 단위로 만들던 나날에 있었던 일을 더듬기 시작하였다.

공장에는 배혁성이라는 혁신자가 있다. 오늘은 혁신자이지만 몇해전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며칠째 배혁성동무가 출근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안 지배인이 어느날 직장장, 작업반장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일만 일이라고 하면서 혁성동무를 찾아볼 생각을 못했구만.》

그날 앓시 걷는 지배인의 손에는 몸보신에 좋다는 보약이 들려있었다. 그때 일을 돌이켜보며 배혁성동무는 말하였다.

《정말 땀을 뺐습니다. 사실 아프다는것은 구실이였습니다. 그날 지배인동지는 우리 서로 마음을 합쳐 일해보자고 말하더군요.》

이런 나날에 종업원들은 하루빨리 공장을 추켜세우려고 아글타글 애쓰는 지배인의 마음을 리해하게 되였고 발벗고 따라서게 되였다.

올해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내고 새로운 전투에 돌입하였을 때 리진국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종업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었다.

지배인이 소성로송풍기를 보다 효률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정력을 쏟아붓고있을 때 원석작업반 번혁주, 김형섭동무들과 생산작업반 김인환, 김희관동무들을 비롯한 로동계급은 원료의 조합비률을 과학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용적계량기를 자체로 만들어 내놓았다.

로동자들이 불편한 몸을 좀 돌보라고 병원으로 등을 떠밀때마다 기계동음을 들으며 일하는것이 제일 좋은 치료라고 하면서 현장에 더 든든히 발을 붙인 지배인, 끼니는 건너도 하루계획을 못하고는 발편잠을 잘수 없다고 하면서 두몫, 세몫씩 일감을 맡아하면서도 만족을 모르던 로동자들…

오늘 신평군에서는 통이 큰 진실을 마음먹은대로 하고있으며 그 면모가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고있다.

군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는 보배공장!

이것이 신평군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남다른 긍지이다.

본사기자 리신향

그들이 새겨가는 청춘시절의 년륜

송남청년탄광 김진청년돌격대원들

송남청년탄광 김진청년돌격대가 조직되여 복구한 침수갱의 총연장길이 수천m, 이것은 김진청년돌격대의 지난 7년간의 전투실적이다.

당에 대한 불같은 충정과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석탄증산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이들은 올해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속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더욱더 힘있게 떨쳐가고있다.

매일, 매 시각 자연과의 엄혹한 투쟁속에서 한m 또 한m 전진하며 지하막장에 청춘의 자욱을 새겨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슴속에 차넘치는것은 무엇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어나가는것은 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우리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청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몇해전 4월 어느날 1진차갱에 대한 침수복구를 해나가던 돌격대원들은 동발에 새겨져있는 글발을 마주하게 되였다.

《송남청년탄광개발 20주년을 맞으며…》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그대로 보존되여있는 그 글발에서 누구나 쉬이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미제를 때려부신 그 기세로 송남으로 달려왔던 어제날의 탄광개발자들, 천리마대고조시기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앞에 떳떳하기 위해 낮과 밤을 이어 줄기찬 투쟁을 벌린 전세대 청춘들의 넋이 깃들어있는 글발앞에서 돌격대원들의 가슴은 높뛰였다.

침수갱복구, 그것은 단순히 석탄증산을 위한 전투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고립압살하려는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임을 돌격대원들은 그 글발앞에서 더욱 깊이 새기였다. 갱막속에 묻혀있는 동발 하나, 레루 한장에서도 전세대들의 넋을 뜨겁게 새겨안은 돌격대원들의 심장은 하나로 고동쳤다.

전후 맨주먹으로 탄광을 개발했던 전세대들처럼!

지난 5월 18일, 김진청년돌격대원들이 파고앉은 막장들에서는 약속이나 한듯 힘있는 발파소리가 련이어 울려나왔다.

년간 굴진계획완수의 힘찬 메아리였다.

해마다 2년분 굴진계획을 완수해온 그들은 올해에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기어이 3년분 굴진계획을!

2소대의 막장에서 뜻밖의 붕락이 일어났을 때였다.

하루는 실히 걸려야 할 복구를 단 4시간만에 해제낀 소대원들은 다음교대성원들이 들어왔지만 누구도 퇴넘을 하지 않았다.

2소대원들과 함께 복구작업을 진행한 돌격대참모장 오철룡동무에게 2소대장 리명혁동무가 다가왔다.

《참모장동무, 굽세기를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교대시간까지 작업을 연장하겠다는 리명혁동무의 말이였다.

《견디어낼수 있겠소?》

《우리야 송남의 청년들이 아닙니까.》

송남의 청년들, 그 말 한마디에 돌격대원들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한때 길을 잘못 들었던 이들이 청년돌격대를 무었을 때 누가 그들의 진심을 알아주고 제일 기뻐해주었던가. 어머니당조직이였다. 당에서는 그들을 대담하게 믿고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침수갱복구를 통채로 맡겨주었다. 어머니당조직의 그 믿음에서 다름아닌 자기들이 송남의 청년탄부, 그 이름을 빛내여온 탄광의 첫 개발자들의 충정과 애국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어머니당의 믿음을 뜨겁게 새겨안은 청년돌격대원들이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교속도굴진경기가 청년돌격대원들의 높은 열의속에 진행되고있다.

돌격대장이 기본굴진력량을 이끌고 참가하는 다른 돌격대들과는 달리 소대장들이 소대를 이끌고 참가하여 일자리를 쑥쑥 내는 이곳 청년돌격대를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

돌격대장으로부터 마지막돌격대원에 이르기까지 한명한명이 쇠소리나는 청년탄부로 준비된 이곳 돌격대의 전투력에 누구나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청춘시절의 하루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청춘시절의 년륜을 그들은 이렇게 새겨가고있다.

본사기자 신현규

승리의 신심 드높은 일터

함흥뜨락또르부속품공장 2가공직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일편단심 백옥같은 충정으로 당과 수령을 받드는 위대한 인민의 정신력을 믿고있으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습니다.》

함흥뜨락또르부속품공장 초급당일군인 김영철동무로부터 2가공직장이 잘 꾸려졌다는 말은 이미 들었지만 직장구내에 들어서던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공원을 방불케 하는 직장구내의 우거진 과일나무들과 태양열온실, 집짐승우리들, 정갈한 작업현장들…

자체의 힘으로 그렇듯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직장장 리명룡동무는 《승리의 신심이 안아온 결실입니다.》라는 한마디로 명쾌하게 대답하였다.

옳은 말이였다.

혁명은 신념으로 전진하며 승리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겨안고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 헤칠 때 어디서나 그렇듯 자랑스러운 결실을 이룩할수 있는것이다.

처음부터 모든 일이 잘된것은 아니였다.

접쌓이는 시련과 난관으로 하여 엇갈린 주장들이 떠돌던 바로 그때 직장장 리명룡동무가 한 말이 있다.

선군시대공로자들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했겠는가. 그들이라고 조건이 남보다 좋아서 어머니당에 기쁨드리는 일을 했겠는가. 우리도 그들처럼 일해보자.

이곳 로동계급은 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애국헌신의 길을 꿋꿋이 이어가는 시대의 영웅들과 선군시대공로자들의 모습에 자기들을 비추어보며 한사람같이 일떠섰다.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손으로!

직장에 창조와 락관의 열기가 넘쳐났다.

로동자들은 작업의 쉴참과 하루일을 끝낸 후이면 나무를 심고 잡초를 걷어냈으며 온실의 기초를 팠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속에 직장은 낡은것을 털어버리며 나날이 일신되기 시작하였다.

온갖 고생을 이겨내며 구내에 일떠세운 태양열온실에서 첫물남새를 거두어들일 때 로동자들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였다. 집짐승들이 욱실거리는 축사와 산뜻하게 꾸려진 휴게실과 목욕탕 등 자기들의 열정이 깃든 창조물들을 보면서 로동자들은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천리도 눈앞에 지척이라는 진리를 더욱 절감하게 되였다. …

휘채를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구내에 조성한 꽃밭을 가꾸며 유쾌히 웃는 종업원들의 인상깊은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다.

일터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는 과정에 하나로 합쳐진 직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의 마음은 생산에서도 큰 위력을 나타내였다.

이들은 지난해 충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목표를 기한전에 넘면지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특히 선반공 리혼동무는 충정의 70일전투의 나날 하루에 수십개의 기통토시를 가공해내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올해에도 이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공장의 본보기단위답게 만리마대진군의 선봉에서 달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른 때에도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해가는 이들의 일터는 래일의 승리를 믿는 신념의 강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과시하는 곳으로 되고있다.

결코 오래전의 일이 아니였다.

적들의 봉쇄책동이 악랄해지고있는 조건에서 직장이 현행생산을 밀고나가는것만도 성과라는 말들이 오간것은 불과 몇해전이였다. 그러나 이곳 로동계급은 짧은 기간에 생산뿐이니라 많은 측면에서 사람들의 표상을 바꾸어놓았다.

이들의 어제와 오늘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승리자의 추억을 안고 또다시 래일을 향해 더욱 기세충천해 노도쳐가는 그들의 발걸음소리에 그 대답이 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길에 행복이 있고 아름다운 생활이 있다.

본사기자 리경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9일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조국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총련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전시가요를 높이 부르며

구장군 조산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작보급된 전시가요들을 힘차게 부르며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위훈을 떨쳐가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들과 노래보급책임자들이 들끓는 전투현장들에서 전시가요들을 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모임, 감상발표모임 등을 자주 조직하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전시가요를 가지고 작업반별노래경연도 진행하고있다.

노래경연을 통하여 농장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을 심장으로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으며 그들처럼 살며 투쟁할 신념의 맹세를 굳게 다졌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전시가요들을 힘차게 부르며 미제를 쳐부시고 승리한 인민군용사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동통신원 조건일

이딸리아에 갔던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대표단 귀국

재춘희 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대표단이 이딸리아의 로마에서 진행된 국제민주녀성련맹 시기국회의에 참가하고 29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하상국부학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2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고베조선고급학교 교장 허경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29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지자기폭풍에 대한 자료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자기폭풍이 예견되는 날은 다음과 같다.

13일: 활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14일에는 지자기편의 섭동작용이 있을수 있다.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이 땅우에 통일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자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군중대회 시, 군들에서 계속 진행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군중대회가 시, 군들에서 계속 진행되고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대회장들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 우리 민족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풀수 없는 피맺힌 한을 남긴 백년숙적 미제를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된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굳은 의지를 안고 모여온 각계층 군중들로 차고넘치였다.

안주, 신포, 단천시, 평원, 성천, 함주, 전천, 우시군군중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신성한 조국강토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미제가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거리와 마을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였으며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세균무기와 화학무기까지 대대적으로 사용하면서 조선민족을 멸살시키려고 날뛴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그들은 당의 령도밑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를 안고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영웅적정사항전으로 침략자 미제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 도덕적참패를 안기고 위대한 전승신화를 창조하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믿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연설자들은 침략자 미제가 조국해방전쟁에서 심대한 참패를 당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무릎을 꿇은 때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수치스러운 패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오늘도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미쳐날뛰면서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고있다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투철한 대적관념과 반제계급의식을 가지고 사회주의 정치군사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를 억세게 틀어쥐고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실천적성과로 받들어 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자각을 안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더 높은 알곡증산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야만적인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릴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송림, 구성시, 태천, 곽산, 창성, 금천, 황주군에서 진행된 군중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미제살인귀들과 계급적원쑤들에 의해 눈도 감지 못한채 숨진 수많은 령혼들이 피의 복수를 당부하고있다고 하면서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보복의지를 표명하였다.

로동당원, 모범로동자, 모범농민이라고 하여 눈알을 뽑고 심장을 도려내여 죽이고 무고한 녀성들과 젖먹이어린이들까지 생매장한 야수들이 바로 미제침략자들이라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년대가 바뀌고 세기가 변하여도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철천지원쑤들이 또다시 우리 조국땅을 삼키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있다고 하면서 두발가진 승냥이미제에게 반드시 피의 대가를 받아낼것이라고 말하였다.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워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출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태천발전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원쑤들에게 복수의 총폭탄을 퍼붓는 심정으로 증산의 동음을 더욱 세차게 울릴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이 당의 총대중시사상을 심장에 새기고 조국의 방선과 사회주의제도를 금성철벽으로 지키며 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용맹과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철천지원쑤, 침략과 악의 원흉인 미제에 대한 피맺힌 절규와 복수의 함성은 청단, 연안, 안악, 안변, 고성, 법동, 초산군군중대회장들에서도 힘차게 울려나왔다.

그들은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만리마시대의 기적적성과를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함으로써 우리의 전진과 부강번영을 탐가와하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제재와 봉쇄책동에 파렬구를 범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군대를 자기의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물심량면으로 적극 원호하며 자기 고장과 향토를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범접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져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결전의 시각이 온다면 전민항전에 적극 떨쳐나 침략자, 도발자들을 씨종자도 없이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무산, 경원, 백암, 운흥, 룡서군군중대회장들에서도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영웅조선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여나갈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결의가 울려나왔다.

그들은 우리 나라를 분렬시키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주고있는 장본인은 날강도 미제이라고 하면서 침략자들이 최근에는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이고 정정당당한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을 그 무슨 《위협》과 《도발》로 걸고들며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북침핵전쟁연습소동에 광분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미제호전광들이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는 핵선제타격훈련은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원쑤들이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선군조선의 핵보검으로 침략자무리들을 모조리 격멸소탕하고 우리 인민의 쌓이고쌓인 원한을 반드시 풀고야말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년대와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성취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들에서는 군중시위들이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하늘의 태양에 감히 도전해나서는자들은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련합성명에 접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지만 그것은 멸망에로 줄달음치는자들의 마지막발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련합성명에 접한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지금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칠 천인공노할 흉계를 꾸민 특대형국가테로범죄자들을 씨도 없이 죽탕쳐버릴 복수의 의지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살아숨쉴 곳을 찾지 말라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칠 천인공노할 흉계를 꾸미고 치떨리는 비밀작전을 추진한 천하악당들의 특대형국가테로범죄행위에 치솟는 격분을 금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련합성명에 접한 우리 2.8비날론련합기업소 전체 로동계급은 지금 박근혜악녀와 리병호일당에 대한 끓어넘치는 증오와 분노로 복수의 피를 펄펄 끓이고있다.

미중앙정보국과 괴뢰국정원것들이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테로를 감행할 목적밑에 극악무도한 테로범죄일당을 침입시킨 사실이 적발되여 온 세상이 경악한것이 바로 얼마전이다. 그런데 또다시 박근혜년과 리병호일당이 가장 잔악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하늘의 태양을 어째보려고 날뛰였으니 어찌 참을수 있단 말인가.

상식도 리성도 모르고 날뛰는 괴뢰패당들의 꼴이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얼마나 우리의 눈부신 전진에 덴겁을 하였으면 제 숨통에 올가미가 조여드는것도 느끼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날뛰고있겠는가.

우리 비날론로동계급은 괴뢰역도들이 제정신없이 미쳐날뛸수록 자력자강의 무쇠주먹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적대세력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철추를 안기는 징벌의 동음, 보복성전의 동음을 우렁차게 울려나가고있다.

력사의 심판은 내려졌다.

우리의 최고수뇌부의 안전을 해치려고 발악한 박근혜악녀와 리병호일당은 마땅히 공화국법에 따라 극형에 처해야 한다.

천하악녀 박근혜와 리병호일당은 이 하늘아래서 살아숨쉴 곳을 찾지 말라.

2.8비날론련합기업소 지배인 장명학

선군청년전위의 본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련합성명에 접한 선군조선의 수백만 청년들은 지금 하늘의 태양에 감히 도전해나선 특대형국가테로범죄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해버릴 멸적의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고 박근혜와 리병호같은 버러지들이 감히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보겠다고 미쳐날뛰였다니 생각만 해도 분노로 이가 갈리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것 같다.

우리의 최고수뇌부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며 우리모두의 삶과 운명의 전부이다.

우리 최고수뇌부에 도전해나서고 감히 수뇌부의 안전을 해치려 하는자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 끝에라도 따라가고 천길땅속을 파헤쳐서라도 기여코 찾아내여 더러운 몸뚱아리를 무자비하게 짓뭉쳐버려야 한다는것이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를 생명으로 간직한 선군조선청년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우리는 빈말을 모른다. 이번 특대형범죄에 가담한 인간쓰레기들은 선군청년전위들의 정의의 심판과 복수를 면치 못할것이다.

인간추물들의 무모한 망동, 우리 삶의 전부에 도전해나선 악행이 얼마나 참혹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겠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사는 선군조선의 청년전위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미쳐날뛸수록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천겹만겹의 방탄벽이 되어 결사옹위할것이며 결정의 시각이 오면 수백만의 미싸일이 되고 총폭탄이 되어 원쑤놈들을 짓뭉개버릴것이다.

수백만 청년들의 심장마다에서 솟구치는 천백배의 보복일념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막을수 없으며 철천지원쑤인 미국놈들과 그 졸개놈들이 피할 자리는 이 행성에 더는 없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리주철

징 벌 의 지 를 안 고

정말 격분을 참을수가 없다.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범죄를 기도한 박근혜와 같은 인간오물들이 아직까지 숨이 붙어있다는것이 분하기 그지없다.

우리의 최고수뇌부는 곧 존엄높은 우리 당이고 국가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안겨주고 지켜주는 우리 당, 우리 공화국,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힘과 지혜 지어는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 다름아닌 우리 인민이 아닌가.

박근혜와 어중이떠중이들이 자기 처지를 안다면, 령도자의 두리에 뜻과 정으로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을 알고있다면 조용히 안식처나 찾았어야 하였다.

뜨물통의 오이꼭지신세에 감히 하늘의 태양을 어째보려는것 자체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를 우롱한 범죄자들이 살아숨쉬는 한 추호도 드놀지 않는것이 무자비한 징벌의지이다.

지금 우리 농업근로자들뿐아니라 온 나라가 가물피해막이투쟁을 사회주의조국존엄사수전으로 여기고 떨쳐나섰다.

우리들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선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내리는 심정으로 가물과의 투쟁에서 기어이 승리를 안아오겠다.

나라쌀독을 더 많은 쌀로 채우는것으로 우리의 최고존엄을 사수하고 사회주의를 지켜가겠다.

배천군 홍현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류대철

력사의 오물들을 깨끗이 쓸어버리리

인간쓰레기들이 감히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인 최고수뇌부를 노린 천인공노할 흉계를 꾸미였다니 이 어찌 용서할수 있단 말인가.

우리 로농적위군 대원들의 심장은 원쑤들에 대한 복수의 일념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존엄높은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려는 자들이 있다면 절대로 용서치 않고 가차없이 징벌해버리는것이 우리 로농적위군의 무자비한 본때이다.

감히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한 원쑤놈들은 이제 가장 참혹하고 가장 처절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을 억척같은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는 우리 로농적위군 대원들은 특대형국가테로범죄자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탕쳐버릴것이다.

태양이 없는 꽃을 바랄수 없듯이 최고수뇌부와 헤여져서는 삶과 행복이란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우리들이다.

최고수뇌부를 노린 원쑤들의 흉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마음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권리를 찬탈하려는 사상 최대의 극악무도한 도발행위이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우리의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선 특대형국가테로범죄자들이 지구상 어디에 있건 이 하늘아래에 절대로 살아숨쉬지 못하게 무자비하게 징벌해버리자!

이것이 우리 로농적위군 대원들의 맹세이다.

원쑤놈들은 천벌이 어떤것인가를 뼈저리도록 체험하게 될것이다.

중구역도로시설관리소 로농적위군 대원 김은성

죽음의 시각을 분분초초 기다리라

펜대를 쥔 우리의 손이 세차게 떨리고있다. 해빛밝은 교정에서 희망의 나래를 펼쳐가던 우리들의 가슴마다에서 분노의 용암이 무섭게 폭발하고있다.

《복지도부재기》작전과 《암살》음모, 감히 이 세상에 있을수 한 일인가.

《극형》이라는 두 글자로밖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씨도 없이 처단할 천만군민의 징벌의지를 표현할수 없는것이 안타깝다.

우리의 삶과 운명의 태양을 감히 어째보려고 어리석게 짝이 없는 특대형범죄행위를 계획적으로 은밀히 추진하여왔다는 생각만 하여도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린다.

당장 펜대를 총대로 바꿔잡고 용약 달려나가 그놈들의 더러운 몸뚱아리에 멸적의 총탄을 가슴 후련히 퍼붓고싶다.

하늘의 태양에 감히 도전해나서는자들을 최고의 극형에 처한다고 하여도, 재가루로 만든다고 하여도 이 심장에 쌓이고쌓인 한이 풀릴것 같지 않다.

태양이 있어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듯이 혁명의 최고수뇌부가 있기에 해빛밝은 배움의 교정도, 조국의 밝은 미래도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한 우리 청년대학생들이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적개심은 하늘에 닿았고 복수의 일념은 활화산처럼 끓어번지고있다.

우리 룡남산아들딸들은 분노한 이 땅의 5백만 청년들과 함께 영원한 교정의 이름으로 어리석은 개꿈을 꾸고있는 원쑤들에게 선고한다.

이 가련한것들아, 죽음의 시각을 분분초초 기다리라!

너희들은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처참한 개죽음을 당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똑똑히 알아두라.

만일 이제 또 어떤 놈들이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어째보려고 조금이라도 움씰한다면 우리 룡남산아들딸들이 수령결사옹위의 무서운 주체탄이 되어 네놈들을 죽탕쳐버릴것이라는것을.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학생 김룡준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저해하고 자멸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군사적대결망동을 걷어치워야 한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대답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이 《북도발위협》을 떠들며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을 고취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괴뢰군호전광들은 미제침략군과 함께 남조선과 미국본토에서 우리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련합훈련을 감행한데 이어 6.25를 계기로 《2017년 통일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는 등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당국자들은 전연지대의 군부대들과 《한미련합사단》 등을 돌아치며 《북의 실존적위협에 대한 대응》을 떠벌이고있으며 지어 괴뢰국방부 장관후보라는자는 《유사시 전선을 북상시켜 북지역에서 싸울수 있게 하겠다.》는 망발까지 꺼리낌없이 줴쳐댔다.

특히 남조선집권자는 23일 우리를 겨냥한 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하면서 《북미싸일도발고도화》니,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느니 하고 떠벌였으며 이에 대해 괴뢰당국과 보수언론들은 《대북경고메쎄지》라고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진정어린 호소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미국의 반공화국침략전쟁책동에 가담하는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남조선의 현 당국이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을 고취하고있는것은 실제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생각이 없으며 력대 독재《정권》들처럼 《대화있는 대결》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대화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도발적망발을 함부로 줴치며 군사적대결광기를 부리는것은 곧 대화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며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열망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다.

외세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조치들을 《도발》로 걸고들고 미국과의 《동맹》강화와 침략전쟁연습, 동족을 겨냥한 탄도미싸일발사놀음에 매달리고있는것은 민족의 근본리익을 외면하고 이 땅에 전쟁을 몰아오는 쓸개빠진 망동이다.

괴뢰군부패당이 감히 동방의 핵강국, 로케트맹주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 우리에 대한 《군사적대응》을 떠벌이는것은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부질없는 객기이다.

더우기 미국에 군사주권마저 빼앗긴 괴뢰들따위가 그 무슨 《자주국방》타령을 하며 우리와 맞서보겠다고 하는것자체가 제 주제도 모르는 가소로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대화를 원하고 평화를 바란다면 민족의 주적인 미국에 아부추종하고 보수세력의 비위를 맞추며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군사적대결망동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가지고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부터 해소할데 대한 우리의 애국애족적호소에 호응해나서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경고와 충고를 새겨듣고 선택을 똑바로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남조선의 로동운동단체들 총파업에 돌입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로동운동단체들이 비정규직철폐와 최저임금인상을 요구하여 28일 사회적총파업에 돌입하였다.

민주로총은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총파업시작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2주일동안 집회를 이어갈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30일 대학과 병원, 지방자치단체소속 비정규직로동자들, 농민, 장애자 등 수만명의 각계층이 참가하는 대규모총파업집회를 가질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로조는 서울역광장에서, 전국조선업종로조련대는 청와대주변에서 생존권을 위한 총력투쟁결의집회들을 가지였다.

반공화국제재와 군사적봉쇄해제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2017민주평화포럼》, 《민주평화정부수립과 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가 2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반공화국제재와 군사적봉쇄를 해제할것을 주장하였다.

발언자들은 국민이 초불항쟁을 통해 조선반도에 전쟁위협이 강요되는것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립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북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와 군사적봉쇄가 오히려 위기를 고조시키고 핵억제능력을 고도화시켰다는데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조선반도가 대국들의 놀이터가 되게 할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유엔의 이름으로 강행되는 북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봉쇄는 해제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스스로 파멸을 청하는 배신적망동

남조선에서 각계층 인민들의 대중적인 초불항쟁에 의해 박근혜역도가 탄핵되고 괴뢰보수정권이 끝장난것은 제명을 다 산 보수세력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징벌이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운명과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자들에게는 결코 앞날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런데 괴뢰보수패당의 가련한 운명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그자들과 오히려 맞장구를 치면서 반공화국대결책동에 함께 어울려 돌아치는 세력이 있다. 다름아닌 《국민의 당》이다. 지금 이 당패거리들은 극악한 매국노무리인 괴뢰보수패당의 악랄한 동족대결소동에 편승하여 무지하게 놀아대면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 통일에 대한 민심의 지향에 공공연히 역행하고있다.

지난 시기 《국민의 당》것들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계승》에 대해 줄곧 떠들어왔다. 이런자들이 이제 와서는 태도를 돌변하여 우리를 악의에 차서 헐뜯는가 하면 반공화국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고있다. 《국민의 당》패거리들은 《북이 핵개발과 미싸일발사를 고집》하고있다느니, 《지금은 대북제재국면》이라느니 하고 고아대면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들며 제재압박에 미쳐날뛰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망동을 지지해나서고있다. 그런가 하면 그 무슨 《강력한 안보의지》에 대해 나발질하며 미국과 보수패당의 《싸드》배치강행책동을 극구 찬성해나서는 얼빠진 추태도 부리고있다. 얼마전에는 교육부 장관후보로 나선 인물이 과거에 미군철수와 남조선미국《동맹》의 페기를 주장하고 그런 내용의 시민사회단체선언문을 직접 발표한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의 장관임명을 한사코 반대해나서는 망동도 부리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국민의 당》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참패이후 당지지률이 대폭 떨어지고 진보세력으로부터 외면당하면서 궁해난 나머지 출로를 보수화에서 찾으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내외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북침핵전쟁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지켜지는지도 모르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의 상징인 우리의 핵억제력을 악의에 차서 시비중상하며 보수패거리들과 작당하여 제재나발을 마구 불어대는 《국민의 당》패거리들의 추태는 실로 격분을 자아낸다.

《국민의 당》이 《싸드》배치를 적극 지지해나서는것도 마찬가지이다.

《싸드》배치는 괴뢰보수패당이 떠들어대는것처럼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것이다. 《싸드》의 배치는 남조선을 대국들의 핵대결장으로 만들고 인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만을 빚어내게 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성주군과 김천시의 주민들은 물론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이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련일 힘차게 벌리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싸드》배치를 강행하여 조국강토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것이야말로 가장 추악한 매국역적행위이다.

《국민의 당》은 올해초에 괴뢰보수당국의 《싸드》배치책동을 반대하면서 《싸드》배치철회를 당론으로 정하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겠다고 광고했었다. 지난해에도 이 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과 함께 박근혜패당의 《싸드》배치책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각계의 지지를 받았었다. 자기 당홈페지에 《싸드》배치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폭로하는 동화상들을 올려 여론의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그러던자들이 이제 와서는 언제 그랬던가싶게 《싸드》배치를 적극 지지하면서 보수의 흉내를 내고있다.

《민주개혁》을 표방하던 《국민의 당》이 정치적신조도 없이 민심을 외면하고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보수패당과 공공연히 야합하여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에 박수를 보내고 동족대결을 선동해나서고있는것은 파멸의 쓴맛을 본 보수의 가련한 신세를 망각한 머저리짓으로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는 무지스러운 망동이 아닐수 없다.

이 당의 배신적인 행위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지어 지지기반이라고 하는 전라도지역의 민심까지도 《국민의 당》을 가리켜 《반국민당》, 《배신의 당》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등을 돌려대고있다. 하여 이 지역에서 《국민의 당》의 지지률이라는것은 초라하기 그지없는것으로 되였다.

《국민의 당》패거리들의 망동은 새 정치, 새 생활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초불투쟁에 대한 도전으로 된다.

남조선의 초불민심은 꺼지지 않았다. 력사의 오물장에 처박힌 박근혜《정권》의 반인민적이며 반민족적인 정책을 비롯하여 친미굴종적이고 동족대결적인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라는것이 초불민심의 요구이다. 이에 도전해나서는 세력에게 앞날이 있을수 없다.

《국민의 당》이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미국과 보수패당의 동족대결책동에 계속 동조해나서다가는 박근혜역적패당과 마찬가지로 인민들의 증오와 버림을 받고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히게 될것이다.

후회는 항상 때늦은 법이다.

《국민의 당》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대세의 흐름과 초불민심을 따라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라설하

예속과 굴종의 쇠사슬을 걷어내야 한다

남조선통치배들이 세계앞에 미국의 가련한 식민지하수인으로서의 창피스러운 몰골을 보여주고있다.

《민주개혁》을 표방하는 현 남조선《정권》하에서도 미국과의 《동맹》이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고 《동북아시아의 번영을 담보하는 안전판》이라느니,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느니 하는따위의 역겨운 타령이 어지럽게 울려나오고있다. 집권자부터가 자기의 《대북정책》기조가 트럼프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과 차이가 없으므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떠들고있는 판이다. 이 시대착오적이고 어이없는 타령에 사람들은 환멸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 무슨 《혈맹》이니, 《우방》이니 하는것들은 남조선미국《동맹》을 정당화하기 위한 한갖 허울일뿐이다. 남조선미국《동맹》은 본질에 있어서 지배와 예속, 굴종의 올가미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있는 실제적통치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미국이다. 《정권》은 있어도 실권이 없고 군대는 있어도 통수권이 없으며 경제와 문화는 있어도 제것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가 바로 남조선이다.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 미중앙정보국 남조선지부 등은 백악관의 지령을 주구에게 하달하고 그 집행을 지휘, 감독, 통제하고있는 현지지배기구들이다.

남조선에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으려면 미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것은 하나의 공식처럼 되여왔다.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먼저 대양건너 미국을 찾아가 부임인사를 하고 예속관계를 확약하며 상전의 훈시를 받는것이 어길수 없는 관례로 되여있다. 그 무슨 《정상회담》이라는것도 사실상 미국이 자기의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고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요구를 내리먹이기 위한 수단이다.

반세기가 넘도록 이어져온 남조선미국《동맹》의 수치스러운 력사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지배의 올가미가 갈수록 바싹 조여지는 속에 친미주구들이 상전에게 민족의 리익을 깡그리 섬겨바친 미국의 악순환이였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만 놓고보아도 그것은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기지화하는데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게 하고 강점기간도 무기한으로 설정하고있는 력사상 가장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이다. 미국과의 《동맹》강화라는 쇠사슬에 칭칭 휘감겨 남조선의 숱한 청장년들이 전쟁대포밥으로 내몰리였으며 괴뢰통치배들은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섬겨바치였다.

남조선의 친미주구들이 상전과의 《동맹》을 그 무슨 《핵심축》이니 뭐니 하고 추어올리며 역겨운 아첨을 하였지만 미국은 그들을 한갖 식민지노복으로, 머슴군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이런 불평등한 관계가 어떻게 동맹관계로 될수 있겠는가.

북남관계파국의 악순환을 초래한것도 다름아닌 남조선미국《동맹》이다.

미국은 북남관계가 개선되면 남조선에 침략군을 주둔시킬 명분을 잃게 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대국들에 대한 군사적견제와 세계제패야망실현의 중요한 전초기지를 잃게 된다는 위구심으로부터 북남관계개선을 극구 방해해왔다. 삼천리강토에 화해의 봄기운이 차넘칠 때마다 미국은 군사적긴장과 전쟁연습책동으로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면서 동족끼리 싸우도록 괴뢰들을 배후조종해왔다. 북과 남이 아무리 좋은 합의를 이루었어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종당에는 북남관계가 파국을 면치 못한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방해책동때문이다.

력사는 남조선미국《동맹》관계가 심화될수록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더욱 첨예해지며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골이 깊어지는 결과만 빚어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나라와 민족들이 저마다 자기 리익을 실현하며 경쟁적으로 발전을 지향해나가고있는 때에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불신하고 외세에 추종하며 그와의 《동맹》강화에 매달리는것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가로막고 자기까지 해치는 자멸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절대시하는 화석화된 노예적근성, 미국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부끄러운 친미사대의식을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친미사대와 굴종은 파멸의 길이며 민족자주만이 살길이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때일수록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자주냐 외세추종이냐, 우리 민족끼리냐 미국과의 《동맹》이냐 하는 중대기로에서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싸드》배치를 늦추면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미국이 으름장을 놓자 안절부절 못하며 상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있는 꼴은 예속과 굴종의 쇠사슬에 묶이운 남조선의 처지가 얼마나 가긍한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외세의존은 자기 민족의 힘을 믿지 못하고 외세에 전적으로 의거하려는 비굴한 사대굴종의식의 발로이다.

외세를 섬기고 그에 추종하면 나중에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이 깡그리 짓밟히게 된다. 외세에 민족문제해결을 내맡기면 대국들의 쩍에 끼워 눈치놀음을 하게 되고 굴종과 예속을 면할수 없다는것은 수난많던 우리 민족의 과거사가 보여주는 쓰라린 교훈이다.

외세의 하수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의 앞길을 가로막는것은 사대매국노들의 고유한 체질적악습이다.

남조선의 력대 통치배들이 털끝만한 민족적존엄과 자존심도 없이 외세를 우상화하고 그에 의존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에 끼친 해독은 실로 엄중하다. 남조선의 괴뢰통치배들이 수치와 망신도 무릅쓰고 반공화국대결정책에 대한 외세의 지지와 인정을 받으며 그와의 공조로 동족을 모해압살하려고 미쳐날뛰였지만 결국 차례진것은 인민의 규탄과 배격, 비참한 파멸의 운명이였다. 박근혜역도의 비극적종말도 그것을 말해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선임자들의 가련한 신세에서 교훈을 찾고 그들이 목에 씌살이 박히도록 메고다닌 외세의존의 멍에를 단호히 벗어던져야 한다.

민족의 운명문제,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가 아니라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남조선당국은 지금처럼 대미추종과 동족대결에 환장해 날뛴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허영민

당국의 대미굴종행위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7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긴급집회를 가지고 당국의 대미굴종행위에 혐오감을 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쟁연습중단, 평화협정체결》,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당국의 비굴한 추태를 성토하였다.

발언자들은 현 집권자가 미국행각을 앞두고 벌써부터 《트럼프와 신뢰쌓는것이 목적》이라고 력설해댔는가 하면 새로 임명된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미2사단을 찾아가 《한미동맹》을 운운한것은 자존심을 몹시 상하게 하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민족의 리익은 민족자주에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집권자가 미국행각시 미국의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립장을 명확히 밝혀 자존심을 세우고 자주외교를 해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싸드》배치문제에 대해서도 절사반대하니 철거하라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밝히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미국대통령에게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겠다고 천명하고 합동군사연습, 전략자산배치, 《대북》제재 중지, 《싸드》철회, 조미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요구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외세에 의존하여 눈치를 보는 태도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였다.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한자들의 처벌을 요구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20일 남조선의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가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요시찰명단을 작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한자들을 처벌할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요시찰명단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가 미흡하게 진행되였다고 단죄하면서 박근혜집권시기의 청와대것들과 《국정원》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요시찰명단의 기본집행부서였던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다른 부서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은커녕 주의를 주는 식으로 그쳤다고 단체는 규탄하였다.

단체는 이와 관련한 모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해당한 법을 내오는것이 문화예술계와 국민들의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숨길수 없는 전쟁도발자, 침략자의 정체

해마다 6월 25일을 전후하여 미국과 남조선에서는 해괴한 광대극이 어김없이 벌어지고있다. 1950년대 조선전쟁도발의 범죄적진상을 가리우고 전쟁발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기 위해 흑백을 전도하며 벌리는 반공화국모략소동이다.

그러나 유엔의 간판까지 도용해가며 우리 민족에게 전쟁을 강요한 도발자, 침략자로서의 미제의 정체는 그 무엇으로써도 감출수 없다.

미제는 조선전쟁전야부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유엔의 간판을 써먹기 위한 면밀한 준비를 갖추었다. 《북조선군이 무장공격》을 했다는것을 유엔에 제소하여 미군의 전면개입을 《합리화》하기 위한 《문건작성그루빠》를 미국무성에 조직해놓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와 유엔총회에 제기할 《기초문건》과 거기에서 채택할 《결의안》까지 작성해놓았다.

미국대통령 특사였던 덜레스가 전쟁도발직전에 38°선일대를 시찰하고 《북조선이 먼저 〈침입〉했다는 역선전과 동시에 북조선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하라. 만약 2주일만 견디여낸다면 이동안에 미국은 북조선이 남조선을 〈공격〉하였다고 제소하여 유엔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륙해공군을 동원하지 않을수 없게끔 할것이다.》라고 떠벌이며 리승만역도를 부추긴 사실은 오늘도 미제의 침략전쟁사에 너절한 모략의 한페지로 남아있다.

조선전쟁이 일어난 6월 25일 미제의 권모술수와 강도적요구에 의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가 긴급소집되였다. 일부 나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무쵸의 보고를 비롯한 미국의 사기적인 문건들을 유일한 《법적근거》로 하여 소집된 회의는 애초부터 《북조선으로부터의 무장공격》이라는 거짓을 기정사실화하고 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기 위한 정치협잡공간에 불과하였다. 이런 마당에서 북침을 《남침》으로 날조한 미국의 《결의안》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2호의 감투를 쓰고 강압통과되는 치욕의 첫막이 올랐다.

련이어 6월 27일 미제는 저들의 무력간섭을 합리화하기 위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3호를 날조해냈다. 여기에는 마치도 미제의 무력간섭이 이 《결의》에 따라 6월 27일이후부터 진행되는것처럼 묘사되여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볼 때 미제는 25일에 벌써 일본에 있던 미5공군비행대를 조선전쟁터에 160여회나 출격시켰다. 다음날부터는 미7함대도 조선해역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미제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조작한 《결의》라는것들은 전쟁도발자, 침략자로서의 정체를 유엔의 이름으로 은폐하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았다.

미제는 또한 사전에 계획한대로 조선전쟁에 15개 추종국가무력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유엔군》조직과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4호를 조작해냈다. 그에 따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조선반도를 재더미로 만들었으며 조선민족의 생존권을 란도질하였다.

미제의 각본에 의해 조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의 부당성과 불법무도함에 대하여서는 이미 력사의 정확한 평가가 내려졌다. 미국도서 《조선전쟁의 력사》 등은 그 하많은 력사자료들중의 일부이다.

일본의 력사가 가미 야후지가 자기의 저서 《조선전쟁》에서 《6월 25일, 6월 27일, 7월 7일의 3개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은 사실상 미국의 〈결의〉였다.》고 평한것은 정확하다.

력사는 미국이야말로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짓밟고 유엔의 이름을 더럽힌 조선전쟁의 도발자, 침략자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유엔은 지난 조선전쟁때에 벌써 자기의 창립사명과는 정반대로 세계제패야망에 들뜬 미국의 조선민족말살책동의 목두각시로 놀아나는 수치스러운 행적을 남겼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유엔이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손탁에 놀아났다는데 력사의 비극이 있다.

문제는 오늘도 미국이 유엔을 반공화국침략실현의 도구로 악용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갖은 구실을 붙여 우리의 《위협》을 만들어내고 유엔의 이름을 걸어 우리를 고립압살하려 하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자기의 독판치기무대로 떡주무르듯 하면서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한 《결의》니, 공보문이니 하는것들을 마구 조작해내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하고있는 인공지구위성발사도 우리가 하면 《탄도미싸일발사》이고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는 미국의 생억지에 방어리시늉을 하며 대조선《제재결의》날조에 손을 들어주고있는것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현실태이다.

미국은 저들의 강권과 전횡앞에 기가 죽어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줴버리고 바람앞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추종자들을 강박하여 꾸며낸 불법무법의 문서장들을 《국제사회의 요구》라는 미사려구로 포장하고있다.

신통히도 지난 세기 50년대에 조선전쟁을 도발할 때 써먹었던 수법그대로이다. 이것은 미국이 또다시 유엔을 도용하여 임의의 시각에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과거는 현재를 위한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국제사회가 미국이 1950년대에 우리에게 조선전쟁발발의 책임을 넘겨씌우고 저들의 침략적인 무력간섭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날조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6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새삼스럽게 돌이켜보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것이 있다.

미제는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면서까지 우리 공화국을 없애버리려고 조선전쟁을 도발하였지만 결국 영웅적조선인민앞에 쓰디쓴 참패만을 당하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 자위권을 빼앗으려고 반공화국《제재결의》조작에 미쳐날뛰였지만 오늘 조선은 미국의 폭제의 핵시대를 끝장낼 주체의 핵강국으로 솟아올랐다.

미제가 또다시 조선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그것은 미국의 종국적멸망으로 이어질것이다.

리 효 진

낱낱이 드러난 파쑈국가의 몰골

얼마전 일본에서 조직범죄처벌법개정안이 국회 중참량원에서 통과되여 정식 법으로 성립되였다. 개정된 조직범죄처벌법에는 범죄를 계획단계에서 처벌하는 《공모죄》의 취지를 담은 《테로준비죄》가 새로 포함되여있다.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집권자와 여당세력들은 그것이 마치도 테로와 범죄를 막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인것처럼 떠들고있다.

완전한 허위이며 기만이다.

유엔특별보고자가 한 발언을 통해 잘 알수 있다. 그는 일본집권자가 국내언론들이 일본의 과거죄악을 사실그대로 보도하고있는것을 두고 기자들이 《지내 예민한》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서 《부당한 보도》로 묘사한것, 지어는 기자들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보도기관에 대한 보조금지불까지 금지하는 등 출판보도부문에 압력을 가한것을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아베가 출판보도계의 입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통과놀음을 벌렸다고 까밝혔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우기 위해 벌려놓은것이라는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개정된 조직범죄처벌법을 보면 개인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법적으로 승인하고있다. 그에 따라 일본의 과거죄악을 폭로하고 당국의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책동에 반기를 들고나서는 사람들을 수시로 감시, 장악하고 필요할 때에는 《테로준비죄》에 걸어 체포구금하고 그들에게 가혹한 법적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여 조직범죄처벌법개정놀음은 테로와 범죄방지의 미명하에 언론과 국내진보세력들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정치적탄압을 합법화하여 군국주의파쑈화를 다그치려는 위험한 망동이다.

극악한 파쑈제도, 일제시대의 망령을 되살리려는것은 일본반동지배층의 정치적목적이다.

《기미가요》의 선창으로 집권의 막을 연 현 집권자는 과거 제국시대의 부활을 일관한 정치신조로 삼고있다. 그는 어떻게 하나 일본을 전쟁을 하는 나라로 만들려 하고있다. 이런 불순한 기도로부터 출발하여 일본반동들은 최근년간 수많은 파쑈악법들을 개악 및 조작하는 놀음을 벌려왔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린을 합법화하는것은 파쑈제도수립의 선차적인 공정이다.

일본반동지배층이 조작한 국가공무원법, 방위비밀보호법, 방송법, 도청법, 특정비밀보호법은 모두가 일본인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유린하는 최대의 악법들이다.

특정비밀보호법 하나만 보더라도 이 법에 따르면 각료를 비롯하여 행정기관 관료들은 자체판단에 따라 일본의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수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자료들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게 되여있다. 만일 특정비밀로 지정된 정보자료들을 폭로하면 그렇게 한 하급관리나 언론은 가혹한 법적처벌을 받게 되여있다. 결국 이 법은 아베를 비롯한 일본반동들이 저들에게 불리한 정보가 새나가는것을 막고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고있다.

이와 같은 악법들은 지난 세기 전반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 말살한 나치스도이췰란드의 전권위임법과 다를바 없는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일본의 정계는 군국화, 우경화되여가고 사회제도는 급속히 파쑈화되여가고있다. 현 집권자가 앞장에 서서 과거 일본이 저지른 특대형범죄들을 외곡, 미화분식하다 못해 부인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전쟁헌법조작에 미쳐날뛰면서 선제공격을 노린 군사적움직임을 로골화하고있다.

일본은 전쟁국가, 파쑈국가의 몰골을 뻐젓이 드러내놓았다.

일본에서 수립되는 파쑈제도가 공고해지는 경우 그만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위태로와진다. 국제사회계가 일본의 조직범죄처벌법개정놀음을 두고 군국주의파쑈화를 다그치기 위한 무분별한 망동으로 락인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일본반동들은 군국화, 파쑈화가 도죠나 히틀러의 비참한 운명을 답습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된다는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일본반동들은 군국주의열기로 들뜬 머리를 식히고 자중자숙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박 송 영

미국의 군사적압박공세는 도발자들의 파멸적재앙을 앞당기게 될것이다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최대의 압박》에 따른 고강도제재와 병행하여 침략적인 핵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련속 들이밀며 군사적위협공갈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지금 미국은 《니미쯔》호핵항공모함타격단을 미7함대의 작전수역인 서태평양해역에 투입하여 이미 전개되여있는 《로날드 레간》호핵항공모함타격단과 함께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해상작전을 강행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지난 20일에는 괌도에 있는 《B-1B》핵전략폭격기편대를 남조선지역 상공에 끌어들여 모의폭격훈련을 벌린데 이어 앞으로 전략폭격기들을 월1차이상 조선반도지역에 출동시키는것을 정례화하겠다고 광고하고있다.

미국이 극비로 취급하던 전략폭격기편대의 조선반도상공투입과 구체적인 훈련내용까지 사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한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수도 평양과 주요전략대상물들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위해 장거리공중대지상미싸일 《재즘》을 전라북도 군산의 미제침략군 공군기지에 전격배치하였으며 남조선강점 미2사단장놈을 공개석상에 내세워 《한미련합훈련의 확대》에 대하여 떠들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위협공갈책동은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정세를 핵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망동으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된다.

엄중한것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노린 횡포무도한 군사적압박공세에 대해 언론에 뻐젓이 공개까지 해대면서 핵전쟁살인장비들을 계속 투입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미국의 군사적기도가 이미 무모한 실행단계에 들어섰으며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에서 군사적선택안은 배제되였다고 하던 트럼프행정부의 광고가 핵선제타격을 포함한 북침전쟁도발흉계를 가리우기 위한 한갖 기만술책에 불과하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침략으로 생겨나고 전쟁으로 비대해진 미제국주의의 승냥이본성은 언제 가도 변하지 않으며 날강도 미국이 존재하는 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는 극도로 악화될수밖에 없고 핵전쟁발발은 더우더 시간문제로 될것이다.

그러나 침략자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오만방자한 양키식허세가 다른데서는 통할지 모르나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절대로 통할수 없으며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추구하는 그 어떤 형태의 침략전쟁에도 대응해줄 절전의 준비가 되여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졸개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사소한 도발의 불꽃만 튕겨도 즉시적인 섬멸적타격을 가하여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만들어놓을 만단의 격동상태에 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려고 어리석게 놀아대다가는 력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을 저들의 본토에서 몸서리치게 맛보게 될것이다.

미국의 트럼프행정부는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개와 의지를 똑바로 보고 무모한 군사적망동이 초래할 파국적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며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주체106(2017)년 6월 29일

평 양

유엔안보리사회의 개혁을 주장

아프리카동맹 의장인 기네대통령 알파 꼰데가 24일 유엔안보리사회개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아프리카나라들에 호소하였다.

그는 유엔안보리사회의 개혁에 대해 더이상 말로만 외울수 없다고 하면서 리사회에서 아프리카가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곧 있게 될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에서 그와 관련한 결정적인 조치들이 취해질것이라고 밝히고 아프리카나라들이 리사회개혁을 위한 사업에서 단합해야 한다는데 대해 강조하였다.

파키스탄에서 유조차화재로 수백명의 사상자 발생

파키스탄의 편잡주에서 유조차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25일 아침 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약 5만L의 휘발유를 적재한 유조차가 달리던 도중 다이야가 터지면서 도로옆으로 굴러떨어졌다.

주변마을주민들이 파손된 유조차에서 새어나오는 휘발유를 받던중 화재가 일어나 세찬 불길에 휩싸였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143명이 죽고 15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현지에 있던 80여대의 륜전기재들이 불타버렸다고 밝혔다.

화재는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땅에 버린 담배꽁초들에 의해 발생하였을수 있다고 현지 대중보도수단들은 추측하였다.

생존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긴급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미국의 발광적인 전쟁준비책동

미국이 침략전쟁준비를 위한 군사비증강책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

26일 미국회 하원 군사위원회가 6 965억US$의 방위정책법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750억US$의 전쟁자금도 포함되여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회오리바람으로 10대의 군용기 파손

미국의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오파트공군기지에서 24일 회오리바람이 휘몰아쳐 10대의 군용비행기가 파손되였다. 이 기지에 있는 군용비행기들은 일본 오끼나와의 가데나미공군기지에도 자주 파견된다.

파손된 군용비행기는 핵전쟁과 대규모재해를 비롯한 《긴급사태》시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이 공중에서 미군을 지휘하기 위해 리용하는 《E-4B》기 2대와 《RC-135》정찰기 8대라고 한다.

미국의 제재를 무의미한것으로 락인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최근 한 방송과의 회견에서 자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무의미한것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대양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결정이 채택되든지 그것은 로씨야를 궁지에 몰아넣을수 없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제재강화는 로씨야를 당황하게 하거나 허탈상태에 빠뜨리지 못할것이며 오히려 로미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뿐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로씨야국가회의 의장 뱌체슬라브 월로진이 최근 한 외교석상에서 대로씨야제재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미국회 의원들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회 의원들에게는 현재 듣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듣지도 못하고 말할줄도 모르면 실책을 범하기마련이라고 말하였다.

미국의 실책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있는가를 모두가 보고있다고 강조하고 그는 미국내에서도 이라크와 리비아 등지에서 저들의 실책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는 오늘 수리아가 새로운 열점지역으로 되였다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미국정객들에게 듣는 능력이 부족한데로부터 초래된것이라고 까밝혔다.

여러 나라에서 마약반대투쟁

— 캄보쟈에서 마약반대투쟁을 강화하고있다.

26일 이 나라 반마약당국은 지난해말부터 올해초까지 압수한 약 130kg의 각종 마약을 소각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 140건의 마약범죄가 드러나 9 370명의 범죄자들이 체포되고 100kg이상의 마약이 몰수되였다 한다.

— 딴자니아의 반마약당국이 21일까지의 지난 1주일동안에 아루샤주에서 반마약작전을 벌려 마약을 재배하던 20명의 범죄자를 체포하고 많은 량의 마리화나를 압수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서부누싸뗑가라주에 있는 롬보끄국제비행장에서 마약범죄자가 붙잡혔다.

— 먄마에서 마약의 해독성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라지오와 텔레비죤방송을 통하여 주민들 특히 청년들이 마약의 람용이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유해로운것이라는것을 똑바로 알도록 하기 위한 보도선전을 벌리고있다.

마약의 위험성을 주제로 한 글 및 미술작품경연도 진행하여 사회적으로 반마약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26일 정부는 이에 대해 밝히면서 앞으로 마약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완강하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 수리아에 대한 군사적공격 감행

이스라엘군이 최근 수리아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또 감행하였다.

24일 수리아의 사나통신은 이스라엘이 쿠네이트라도에 여러기의 로케트를 발사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수리아군은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을 《알 카에다》와 련관된 테로조직에 대한 지원행위로 락인하였다.

25일에도 이스라엘군은 수리아군의 포진지들과 탄약수송차를 공격하였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만행은 수리아주권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지역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중동의 평화를 파괴하는 파렴치한 《중재자》

중동평화를 파괴하는 파렴치한 《중재자》로서의 미국의 본색이 또다시 드러났다.

지난 20일 이스라엘당국은 나블루스시 남부지역에서의 새 정착촌건설을 위한 기초공사에 착수하였다.

웅근 하나의 새로운 유태인거주지역으로 되는 이 정착촌에는 약 100동의 유태인살림집이 건설되게 된다.

수상 네타냐후는 새 정착촌이 개별적인 팔레스티나인들의 토지에 비법적으로 세워진것으로 하여 지난 2월에 철거된 아모나정착촌 주민들을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정당화해나섰다.

하지만 외신들은 1993년 9월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에 오슬로평화협정이 체결된이래 처음으로 이스라엘당국이 정착촌확장이 아니라 새로운 정착촌건설을 시작한데 대해 문제시하면서 그 배경에는 바로 미국의 트럼프행정부의 부추김이 있다고 평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당시 팔레스티나해방조직과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정권이 체결한 오슬로협정에는 이스라엘군을 가자지대와 예리코시에서 4개월내에 철수시키며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제한된 자치권을 부여할데 대한 내용이 명시되여있다.

또한 2년안으로 지역의 포괄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 5년안으로 그 해결을 실현할것을 예견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은 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05년에야 가자지대에서 무력을 철수하였으며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이 두려워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이미 있던 유태인정착촌들을 확장하는데만 매달려왔다.

트럼프행정부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건설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지난해 대통령선거때부터 이스라엘을 떠받들고 비호하는 발언들을 내뱉던 트럼프는 12월에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유태인정착촌들을 합법화하려는 이스라엘당국의 책동을 반대배격하는 결의가 채택된데 대해 반기를 들었다.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아서도 한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정착촌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훈시》하였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두개국가해결책》이든 《한개국가해결책》이든 다 좋다고 하면서 눈감아주었다.

미국을 등에 업고 기고만장한 이스라엘당국자들은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들어와 3개월동안에 유태인정착촌들에서 3 44채의 유태인살림집건설을 시작하였다.

새 유태인정착촌건설도 역시 미국의 부추김밑에 단행되였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지난 2월 이스라엘수상은 미국에서 진행한 트럼프와의 회담내용을 렬거하면서 쌍방이 강점한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의 유태인정착촌건설을 위한 실무그루빠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떠들어댔다.

이로써 《중재자》의 탈을 쓰고 중동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의 진면모가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의 망동은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정권을 중동지역의 지배권수립의 돌격대로 써먹기 위한 술책으로서 중동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파탄시키고 지역정세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있다.

중동에 뻗쳐있는 미국의 검은 마수를 끊어버리지 않는 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

국제사회는 트럼프행정부의 정체를 똑바로 보고 미국의 이스라엘비호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월간국제정세개관

반제투쟁을 떠나 평화를 이룩할수 없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것은 인류의 념원이다. 이 념원은 오직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과의 비타협적이며 원칙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할수 있다. 이달의 국제정세흐름이 그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이달에 들어와 미국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로골적인 핵위협공갈정책에 매달렸다.

조선반도정세는 최악의 긴장상태에 처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는데 질겁한 미국은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비롯한 타격수단들을 탑재한 핵잠수함 《싸이엔》호를 남조선의 부산항에 들이밀었다. 조선반도주변에 핵항공모함타격단들을 집결시켰으며 괌도에 배비되여있는 악명높은 핵전략폭격기 《B-1B》편대를 또다시 조선동해상공에 끌어들여 핵폭탄투하훈련을 감행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또한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례없는 정탐활동을 벌리는데 발광하였다. 미국가지리정보국 국장이라는자는 조선에 대한 위성사진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할것이라고 떠들어댔다. 전쟁열에 들뜬 미호전광들은 일본요꼬스까항을 모항으로 하고있는 미제침략군 해군 이지스구축함 《마스틴》호를 조선동해에 끌어들여 우리측 경제수역을 200㎞이상이나 침범하면서 정탐행위에 돌아치게 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미제의 핵타격수단들이 남조선에 쓸어들어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려놓고있는 시기에 해적선을 우리 경제수역깊이에까지 침범시켜 로골적인 정탐행위를 감행한것은 매우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이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이 극도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제의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책동은 부질없는 객기, 맥빠진자들의 허세에 불과하였다. 분별을 잃고 헤덤비는 미국의 최후의 핵도박은 우리로 하여금 전쟁억제력강화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주었다.

이달에 들어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증강하기로 하였다. 대통령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국방장관 마티스에게 그 규모를 정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대해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그것이 불안한 아프가니스탄정세를 안정시키고 탈리반세력을 완전히 진압할수 있는 그 무슨 새로운 전략이라도 되는듯이 떠들어댔다. 하지만 미국가정보국 장관은 많은 군사원조를 제공해도 아프가니스탄의 안보상황은 앞으로 더 악화될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미국은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의 정권을 전복할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미국무장관은 국내기자회견에서 현 행정부가 정립하고있는 새로운 대이란정책의 골자는 정권교체라고 공개하였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이란, 수리아에서 벌리는 국가전복책동은 극도에 이르렀다. 미국주도의 국제련합 전투기들은 수리아의 북부지역에서 《이슬람교국가》에 대한 폭격임무를 수행하고있던 이 나라 정부군 전투기를 격추하였다.

이것은 미국이야말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겨냥한 대결정책, 국가전복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평화의 교란자, 파괴자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실증해주었다.

이달에 세계 곳곳에서 테로사건들이 련발적으로 일어나 국제사회를 불안과 공포에 빠뜨렸다.

영국의 런던에서 3명의 테로분자가 걸음길에 서있던 사람들을 향해 소형짐차를 마구 몰아댄 후 차에서 내려 칼부림을 하였다. 이 사건으로 7명이 죽고 48명이 부상당하였다.

같은 날에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폭탄테로사건이 발생하였다. 수백명의 사람들로 붐비는 한 장례식장에서 3차례의 폭발이 일어나 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동시테로공격사건이 발생하였다. 자동보총과 권총,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회청사와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였던 아야톨라흐 이맘 코메이니묘소를 동시에 공격한 테로분자들은 그 목적이 이란지도부의 고위인물들을 살해하고 수도에서 불안정을 조성하는것이였다고 말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이란에서 테로를 감행한 진범인을 찾아내여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트럼프는 그 무슨 애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이란이 이번 사건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느니, 테로후원국들은 저들이 장려하고있는 악페의 희생물로 될 위험이 있다느니 뭐니 하며 객적은 나발을 불어댔다.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였다.

국제사회는 이란에서의 테로공격사건이 트럼프의 중동행각직후에 일어난데 대해 주목을 돌리면서 그가 이란과 대치상태에 있는 나라들을 찾아가 반이란적대감정을 고취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사건의 배후조종자가 미국일수 있다고 평하였다. 테로가 발생한 당일날 파키스탄국회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슬람교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길러냈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행정부는 이달에 오바마행정부에 의해 체결된 꾸바와의 《불공정한 협정》을 파기한다고 선포하였는가 하면 국제적으로 심각한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빠리협정에서 탈퇴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세계도처에서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세계지배야망실현에 광분하고있는 미국의 책동때문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는 저절로 도래하지 않는다.

미제를 비롯한 국제반동세력의 침략과 전쟁, 지배와 간섭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지 않는다면 인민들은 침략과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자주적발전도 평화도 이룩할수 없다. 이것이 이달의 국제정세흐름이 다시금 새겨주는 교훈이다.

본사기자 리 현 도

ㄱ-71102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